漢陽歌單

李朝五百年史話

漢陽歌 第一章 (太祖)

어와벗님네야 이歌詞드러보소
이歌詞는漢陽歌라 五百年歷史로다
二十八君相傳하사 治乱興亡仔細하다
湯武갓한우리太祖 創業垂統壯한시고
穆翼度桓世德으로 永興당에誕生하니
하날이내신英雄 天日之表堂々하다
濟世安民큰經綸은 胸中에품어잇고
出將入相大勳業은 不賞之功가지첫다
잇때는어느땐고 恭愍王末年이라
辛旽이內閣出入 所可道也言之醜라
辛禑이니王禑이니 爲君者諱그만두고
우리國家萬世後에 耘谷說노爲正한가

禑(우)를쳐운李仁任(이인임)은
집터까지못슬파다
佟豆蘭(퉁두란)이先鋒(션봉)이요
鄭道傳(졍도젼)이謀士(모사)로다
恭讓(공양)亦是不君(역시불군)이라
天運(텬운)이라할수업다
仙李年光(션리연광)고은빗치
壬申七月旬七(임신칠월슌칠)이라
悽凉(쳐량)한져月色(월색)은
亡國之恨(망국지한)네아느냐

前王之子當立昌(젼왕지자당립창)에
李牧隱(리목은)도流配(류배)로다
禑昌(우창)을내치시고
恭讓王(공양왕)을세웟노나
陳橋驛(진교역)이여기런가
黃袍加身(황포가신)도얏구나
伐李寺(벌리자)무산얼고
虛築防胡萬里(허축방호만리)로다
松岳山(송악산)져문빗헤
万壽隍(만수황)이可憐(가련)하다

威化島(위화도)다시건너
倡義旗(챵의긔)를굽피드니
그時(시)에鄭侍中(졍시중)은
茫然(망연)이블낫던가
壽昌宮(수창궁)너른뜰에
滿朝百官陳賀(만조백관진하)하니
不朝峴(불조현)슬피올나
滿月臺(만월대)굽어보니
杜門洞(두문동)깁흔곳에
七十二賢(칠십이현)誰(수)런고

眞黃花對偶淵明에
李牧隱이 生處업고
元耘谷 어대간고
雉嶽山이 놉고놉다
泰山高節鄭圃隱은
丹心歌를 지엿고나
博浪沙滄海力士
秦始皇을 맛치다시
어들한사 開國政策
革國하면 그만이께

金烏山 採薇亭은
吉冶隱 淸風이라
高峰縣 불근무덤
崔都統을 죠상하고
趙英珪 거동바라
靖安君 指揮바다
善竹橋 불근피가
至今까지 宛然하다
諸王氏 무산罪로
姓名保全 할수업서

少事辛朝恥한장에
伯夷叔齊도 잇고나
呼船東問會連津에
金白巖을 차자보자
圃隱을 害한야고
手中鐵推 놉피드러
翼蔽同死 저錄事는
姓名不傳 可恨이다
사람人에 全가되고
한點찍어 王하로다

一聲欸乃滄波外에
山僧인들어이하리
金陵佳麗帝王州라
龍飛鳳舞이아닌가
蓋頭가朱雀이요
누할재玄武로다
鷄龍山도조컨마는
撤役하고 기근가자
堪輿說노서로듯하
日中不決도얏고나

松京이狹少하니
새都邑을어대할고
圭臬를精히들고
形勢를살펴보니
南漢山城青龍이요
龍山麻浦白虎로다
河淸海晏甲戌秋에
九重宮闕排設할제
無學이하날말이
아난체너모마오

金城千里天府國에
漢陽山川반갑고나
三角山나린룡이
仁王山이도야셔라
광나루가內水口요
臨津江이外水口라
鄭道傳은子坐午요
無學은亥坐巳라
[illegible]오 [illegible]午로할지이면
[illegible]은어이하오

鄭道傳웃스면서
無識하다네말이야
拿將바우天作이요
辰方이허하기로
無學이거동보소
享國永命推數하야
順字를바로보면
三百十八年이로다
蒼葉門일홈이
그무산圖讖인가

네말과갓치하면
儒道는업서지고
兵亂은나도아나
東大門懸板쓸적
순할순자하나써서
太祖에게드리이니
逆受를하셔스니
八百三十이아닌가
蒼字는二十八君
蔣字는三十八世

佛道만盛하리라
冠岳山이不朝하나
갈지자를너어쓰면
預防이아니되나
太祖의遠識으로
격구로바드셧다
宮墻을넘너싸서
太廟를先立하고
蒼字運을찰넘기면
三十八世되단말가

天近蓬萊雲五色에
萬戶千門次第開라
康寧殿延生殿은
吾君萬歲祝壽하고
平壤伯趙浚으로
都城을監築하니
東大門은興仁之門
西大門은敦義로다
礴石고개넘어서니
太學館이여기로다

昌德宮景福宮은
天極閣道應해잇고
隆文樓隆武樓는
鍊武修文하여보자
南北民夫二十萬에
周回가萬餘步라
東小門南小門은
惠化光熙이아닌가
孔孟程朱万世宗師
最尊位에모셧고야

思政殿勤政殿은
구름갓치소삿고나
壯麗도하거니와
規模가宏遠하다
崇禮門이南門이요
肅靖門이北門이라
昭義門은水口門은
長安出入便利하다
我東先輩명현인고
濟濟蹌蹌壯할시고

明倫堂丕闡堂은
養士하는집이로다
集春門크게열고
春塘臺너른뜰에
生員進士欄衫幞頭
中華文物조흘시고
廟堂의놉피안자
典章法度磨鍊하니
闕門左右六曹衙門
兵刑工吏戶禮라

春夏秋冬絃誦소래
國家元氣아닐가
多士를모아노코
科擧를베난고나
錦衣華童玉笛聲에
여개즘이될노난다
黃扉台司議政府는
三政丞이坐起하야
該曹마다判書參判
參議郞廳버려잇다

櫻桃맛을봄이드니
九重仙桃醉해볼가
龍驤虎衛御賜花는
東風에헛날니고
杜門洞黃鹿村은
公論하고나왓던가
一人之下萬人上에
軍國事를統治하고
大冢宰吏曹判書
人物權衡마타잇고

大宗伯禮曹判書
禮文을마타잇고
山川土地戶判이요
土木工事工判이라
司書洗馬春桂坊은
東宮을補導하고
領敦寧領經筵은
耆德元老兼任이요
禁衛大將御營大將
訓鍊大將摠戎使라

大司馬兵曹判書
兵權을마타잇고
承政院六承旨는
王命을出納하고
弘文藝文大提學은
國家辭命掌이라
龍驤衛禦侮將은
閑散官員虛啣이라
外登壇統制使는
三道水軍統制로다

大司寇刑曹判書
刑法을마탓구나
假注書堂後郞은
人主動靜記注한다
祭酒贊善南培仙
山林隱逸禮遇로다
五營門크게열어
軍兵을養成하니
南兵使北兵使는
邊地에重任이요

宣傳官備邊郎은
武弁에淸宦이라
三百六十大小郡縣
文蔭武宦이달녀
馬牌繡衣暗行御史
守令賢否黜陟하고
翼善冠袞龍袍는
主上殿下命服이오
紗帽紅冠雙鶴胸背
堂上官人禮服이라

義禁府左右捕將
罪人을囚禁한다
牧府使監縣令은
字牧之任마다잇고
憲府諫院玉堂三司
百官을彈劾한다
드리玉純金貫子는
崇祿資憲階梯로다
靑紅甲紗고은당경
등채手中훌쳐잡고

三千里너른壇土
八道로논아내야
資憲監司嘉善監司
該道일을統轄한다
內三千外八百에
都兪吁咈氣像이라
金冠朝服象笏은
祭享時禮服이오
孔雀尾氈笠은
武臣들戎服이오

儒巾道袍大小氅衣
士庶人常服이라
眞紗笠에玉鷺달고
諭書囊司命旗는
終南山발근달에
金吾는禁하고
어와거록할사
太祖勳業거록하다
八男五女두셧오니
福人도綿遠하다

大鞘軒芭蕉扇은
大臣行次分明하고
監司留守威風이오
五馬皂蓋흡피롭고
晝信閣罷漏聲에
曉色이玲瓏하다
元妃는安邊韓氏
韓卿의따님이오
在位한지七年이라
倦勤하기例事로다

鳴金以下大吹打는
軍門威儀整肅하다
使令軍牢喝道소래
各邑守令豪氣로다
堯之日月舜乾坤에
太平萬世이아닌가
二妃는谷山康氏
康允成따님이라
永安君에傳位하고
上王으로계시구나

第二章 (定宗)

壯하시고 定宗大王 太祖의 長子로서
推戴할적 祕密謀議 一不干涉하셧으니
그 心跡을 볼작시면 伯夷泰伯 無愧하다

即位는 하엿年 靖安君 動靜보고
王位를 不樂하사 諸王子 祝髮시켜
方外로다 쫏츠려 防微慮遠 더욱甚타

王妃金氏 엿자오며 靖安君 目子보오
王位를 어서주어 以安其心하여주오
그말을 올히역여 即時에 傳位하고

上王으로 물너나서 玩月宮에 계섯구나
王妃는 慶州金氏 金天瑞의 따님이라
王子가 十五兄弟 翁主가 八人이라

第三章 (太宗)

蓋天英氣太宗大王
太祖의第五子라
化家爲國하신功도
唐太宗과恰似하고
亂臣賊子鄭道傳은
不世之才可惜하다
무엇이不足하야
太宗을害하랴가

하날이내신帝王
神異英睿하신고야
禁廷濺血하신일도
唐太宗과恰似하다
[illegible]祭酒家스화쑤니
殺主馬가비앗나
南誾의妾家에서
哀乞求生可笑로다

知人之鑑河崙이난
傾心附之하엿으라
天倫骨肉못할엿이
聖德虧累애들하라
風雲際會잘만나서
開國元勳되엿스되
芳蕃芳碩다죽이여
太上王이不懌하사

太宗을안보랴고
咸興移御하셧고야
赤池에불근피는
度祖에射龍處라
無罪한問安使臣
가면죽고가면죽어
於焉間七年光陰
白首龍顏異昔時라
萬歲橋얼는건너
樂民樓를作別하고

咸興은豐沛地라
慣面山川반가와라
蒼然이늘근樗木
舊主人을네아느냐
半在江邊半在船에
一去不還멋〻친고
子母馬悲鳴聲에
回心이自然되다
[illegible]지나셔나
積城橋써더기로다

濬源里古園井은
穆祖의舊宇地요
心神이鬱〻하사
歲月만보내시니
俗談에咸興差使
이를두고일음이라
宣傳官을分付하사
回鑾擧動길차리더라
漢江水야잘잇더냐
三角山아네왓노라

一喜一俱(일희일구)太宗大王(태종대왕) 東大門(동대문)議政府(의정부)에 戶曹(호조)에널문遮日(차일)

率百官祇迎(솔백관지영)나와 帷幕(유막)을벗나잡고 天日(텬일)을가리우고

한中間(중간)高支木(고지목)을 太上王(태상왕)이太宗(태종)보고 烏竹宮(오죽궁)에살을먹여

집동목거시왓구나 宿憾(숙감)이陡發(도발)하사 깍지손올닌쯕에

流星(유성)갓치날닌살이 집동뒤에얼는避(피)해 메시고還宮(환궁)하야

太宗(태종)압헤나려온다 幸而得免(행이득면)하엿고야 康寧殿(강녕전)넙은뜰에

獻壽禮(헌수례)를擧行(거행)할제 그집동이異常(이상)하다 술잔들고進前(진전)컨단

太上王(태상왕)內念(내념)으로 한번失手(실수)可惜(가석)하니 袖中(수중)에鐵如意(철여의)로

다시한번쏘리라 天神(텬신)이도으신가 代身(대신)으로進獻(진헌)하니

準備(준비)하고기다린다 太宗(태종)이稱疾(칭질)하고 太上王(태상왕)이할일업서

鐵如意를 손에 쥐고 嘆息하며 하는 말삼
天也라 無可奈라 玉璽를 던지시며
이거시 大段하나 마음대로 해보아라

太宗이 惶恐하야 淚水가 盈盈하다
父子間 天顯之情 엇지 내 그런소냐
七年을 품은 憤이 春雪갓치 살아진다

康衢煙月 玩德宮에 千歲有恨 하단말가
戊子 五月 廿四日에 太上王이 昇遐하니
春秋가 七十四歲 八域臣民 哀痛이라

이때에 滿朝諸臣 主明臣良 조흘시고
冀成公 黃庬村은 河海갓흔 度量이라
平生에 不形喜怒 是非不能 解結이라

黃喜政丞 公事라고 俗談이 도엿스나
政府에 出坐하면 嚴明難犯 그 氣像이
滿朝百官 震慄하야 莫敢仰視 하난고나

文(문)敬(경)公(공) 許(허)敬(경)庵(암)은
素(소)性(성)이 簡(간)嚴(엄)하야
입고 안자 致(치)齋(재)하야
慨(개)然(연)이 流(류)涕(체)한다
이걸 萬(만)一(일)革(혁)罷(파)하면
年(연)少(소)한 奉(봉)使(사)人(인)이
國(국)初(초)名(명)相(상)말할時(시)는
黃(황)許(허)라 必(필)稱(칭)한다
雨(우)傘(산)들고 避(피)雨(우)하며
夫(부)人(인)을도라보아

正(정)冠(관)帶(대)終(종)日(일)危(위)坐(좌)
每(매)事(사)動(동)慕(모)聖(성)賢(현)이라
州(주)邑(읍)에잇난 唱(창)妓(기)
革(혁)罷(파)하자 議(의)論(논)난다
奪(탈)取(취)私(사)賤(천)하라다가
可(가)用(용)할 英(영)雄(웅)俊(준)傑(걸)
文(문)簡(간)公(공)柳(류)寬(관)이는
公(공)直(직)無(무)私(사)작이업다
無(무)傘(산)家(가)는 何(하)以(이)經(경)過(과)
憂(우)形(형)於(어)色(색)하난고나

父(부)母(모)忌(기)日(일)當(당)하면은
母(모)親(친)手(수)縫(봉)幼(유)時(시)衣(의)를
文(문)敬(경)이 하난말이
官(관)妓(기)난 公(공)物(물)이라
多(다)陷(함)罪(죄)辜(고)할거시니
國(국)家(가)에 愛(애)惜(석)하다
單(단)間(간)草(초)屋(옥)不(불)蔽(폐)風(풍)雨(우)
夏(하)天(천)에 비가오면
文(문)貞(정)公(공)孟(맹)思(사)誠(성)은
不(불)事(사)生(생)業(업)淸(청)簡(간)이라

溫陽(온양)數百里(수백리)에
京鄕(경향)로 往來(왕래)할재
癸亥(계해)九月(구월)十六日(십육일)에
上王(상왕)이 外避(외피)하사
巫覡(무격)祈禱(기도)革罷(혁파)하고
皇朝(황조)太監(태감)黃儼(황엄)이가
藩國(번국)이 禍與福(화여복)이
聖天子(성천자)에 달여잇고
鐵鑄(철주)子(자)를 設施(설시)하야
經籍(경적)을 廣印(광인)하고

고부라진 늘근 靑牛(청우)
大臣(대신)行次(행차) 초솔하다
春秋(춘추)가 六十三歲(육십삼세)
在位(재위)는 三年(삼년)이라
帝命(제명)을 밧들어서
濟州(제주)銅佛(동불)마자올녀
佛像(불상)에는 不在(부재)하니
天子(천자)使臣(사신)아니보고
定宗(정종)王子(왕자)召還(소환)하야
賜爵(사작)有差(유차)無憾(무감)하다

孟(맹)고부리 別號(별호)런가
美談(미담)이 되여잇다
太宗(태종)이 盛德(성덕)보소
麗氏(여씨)의 舊染(구염)汚俗(오속)
先拜(선배)佛像(불상)하라거늘
太宗(태종)이 말삼하되
佛像(불상)先拜(선배)못하겟소
峻辭(준사)拒絶(거절)하셧고나
在位(재위)하신 十九年(십구년)에
王世子(왕세자)에 傳位(전위)하고

第四章 (世宗)

上王位에 게시다가 千歲厭世升遐하니 臨終下敎드러보소

壬寅五月初十日에 春秋가五十六歲 爲民之心懇切하다

稼穡艱難百姓들이 上帝께奏達하야 果然每年此日雨를

此時旱災最念慮라 每年今日비하리라 太宗雨라일흠한다

王妃는驪興閔氏 王子가八人이오 泰伯갓찬讓寧大君

閔霽의따님이라 公主가十七이라 太宗大王元子로되

父王이깁흔뜻이 內心에忖度하고 世子位를辭讓하니

忠寧君에잇는줄을 陽狂으로韜晦하야 그心跡이놉푸고야

天縱하신 世宗大王 古篆梵字 模倣하야 子母字 二十八字
海東堯舜 分明하다 訓民正音 지어내니 初聲中聲 終聲이라
牙音舌音 唇音齒音 喉音 言語文字 所未記를 其名曰 諺文이라
輕重淸濁 다잇고나 叅通無礙 하단말가 婦女라도 瞭然하다
再嫁를 嚴禁하니 六鎭을 收復하야 陝塞壯士 일이업서
三從之義 받가신다 野人을 驅逐하니 枕戈閒眠 하난고나
金宗瑞의 功이런가 海州에 기잔쌀은 南陽에 경쇠돌은
惟斷乃成 이아닌가 分寸이 精微하고 音韻이 淸越하다
簫韶九成 新樂府에 龍飛御天 壯한歌曲 集賢殿 設置하야
鳳凰來儀 ᄒᆞ옵시고 王業艱難 알지로다 文學之士 모아두고

月色은 依微하고 蓮燭은 煒煌한대
元孫을 親이 안고 諸學士 손을 잡아
寡人이 千秋後에 此兒를 顧念하라
申申이 付托하셔 玉音이 悽楚하다
國家無事 昇平世에 무산 心憂 잇도던가
文定厥祥 되야 王業이 天作之合 沈后로다
沈后의 所誕으로 八大君이 強盛하다
秋九月 三角山에 王子大君 求景간다
從行宦侍 親이 물녀 登陟優劣 무르시니
宦侍가 回啓하되 石角層巓 万丈削壁
人皆惴慄하건마는 飛鳥갓치 騰陟하니
首陽은 天神이오 人力은 아닙데다
世宗이 드르시고 歎息하며 하는 말삼
他日에 내 子孫이 盡於此手하리로다
明鑑이 그를진대 善後之策 마련켜

無盡하신 長吁永歎 筋力만 損傷되오
庚午二月十七日에 陟方乃死하신고야
春秋가 五十四歲 在位三十三年이라
王妃는 青松沈氏 沈溫의 따님이라
王子는 十八이오 公主가 四人이라

第五章 (文宗)

仁慈孝友 文宗大王 性理之學 高明하다
香奩甘口 洞庭橘은 文章이 卓越하고
趙子昂을 模倣하야 筆法도 神妙하다
後苑에 手植櫻桃 文王의 所嗜로다
依舊東風也自紅에 繞樹悲泣 不忍視라
無母한 王世子는 弱齡이 十餘歲라

蕭墻之內危疑際에
後慮가업슬소냐

集賢殿明月夜에
無端이散步하야

窓外예[illegible]굴너
玉音이慈祥하다

聖候가靡寧中에
諸學士메시안자

銀燭은如晝한데
王世子를어루만져

他日에이아희를
卿等에게부탁치노라

御酒를親이勸해
諸學士沈醉로다

中宮을分付하야
直所에歸出하고

異香滿堂貂皮衾을
玉手로덥허쥬고야

諸學士酒醒後에
淨法聲報하엿드니

無狀한中樞舟가
厥後去就如彼로다

壬申五月十四日에
文宗大王升遐하니

春秋가三十九요
在位는三年이라

子姓도零星하여
一男一女뿐이로다

王妃는安東權氏
權專의다님이라

生時德儀兼全하고
死後精靈異常하다

第六章 (端宗)

冤痛하신 端宗大王
先祖에 顧命大臣
集賢殿諸學士가

冲年嗣服하섯고야
皇甫仁 金宗瑞와
誓死協贊하건마는

天運이 不幸하야
韓明澮 生殺簿에
悲風凄雨 鷺梁津에

人力으로 할일업다
顧命大臣 다죽이고
六臣疑塚 어대련고

可憐하다 申叔舟는
風雪夜 貂皮衾에
圖報는 말할망정

集賢學士 네아니냐
涕泣하든데 아녀냐
窮凶極惡 너모마라

一時富貴조컨마는
千秋名節어이할고
地面하는그夫人을
何面目다시볼가
善惡이不係世類
果然虛言아니로다
見利忘義너모마라
名節潔人되나니라
天地間烈烈之氣
六臣諸公이아닌가

八龍을맛질진대
五湖에돗흘다라
그同生申末舟는
司馬牛의我獨無요
告變功臣金礩이는
鄭昌孫이愛婿런가
三朝舊物鄭麟趾는
元惡大憝네아니냐
一死固知忠義在라
顯陵松柏夢依依는

自靖이나하엿으면
容有何議할것이계
그孫子申用漑는
昭陵復陵力贊할제
六臣과同謀할제
金石갓치구더고나
人間顯戮幸免하나
地下陰誅잇스리라
成三問臨死詩요
廟堂深處動哀絲에

萬事如今抱不知는
朴彭年의 府中詩라
頭上分明白日臨은
河緯地의 襄衣詩라
壯할시고 錦城大君
順興府使 李甫欽과
錦城侍女 潛通하야
檄文盜賊 하단말가
有何罪過 하얏기로
卽位하지 三年만에

禹鼎重時生亦大요
鴻毛輕處死猶榮은
從容就義 柳誠源은
不脫冠帶 自刎하고
謀復舊主 堂堂大義
機事가 不密한가
忠臣義士 흘온 피가
竹溪水가 다붉것다
三寸에게 쫓기여서
寧越安置 무산일고

李塏의 臨刑詩요
男兒得失古猶今에
一尺劍 廢足下는
兪應孚 拱辭로다
順興府 吸唱함이
耳屬于垣 竊聽하고
어화 天運이야
十二歲 幼冲主가
四百里 遠惡地에
孤身隻影 되단말가

十三

梅竹樓月明夜에 슬피우는저杜鵑은 네前身이蜀天子로
玉笛聲이凄凉하다 何處로不如歸나 무산일노너기왓노
天聲尙未聞哀訴라 築室瞻望元觀瀾은 南秋江은痛哭하고
늘피울면쓸대잇나 戀君丹忱븕거잇고 金梅月은佯狂이라
漁溪耕隱成斗袞이 安逸戶長嚴興道는 一日十渡往來하니
生六臣이이아닌가 至誠으로扈衛하야 十渡川이여긔로다
老忘인가讓寧大君 得罪宗社天地不容 杳杳益甚鬼蜮輩가
그上疏意外로다 鱗趾輩는더할소냐 率百官庭請하야
丁丑年十月日에 六臣과錦城은이 禁府都事王邦衍이
末命이나린고나 促禍가아니런가 藥器들고躑躅하다

近侍하든 貢生금이 弓弦으로 목을 얼거 弓劍을 어대두고
自當하고 달여드러 함부로 잡아다려 龍御賓天하단말가
白馬紅袍 侍衛소래 當場에 貢生금이 是日에 烈風雷雨
太白山을 가시려나 九竅流血 卽死하고 黑霧蔽天 愁慘하다
侍臣內人 간곳업시 東風에 落花體로 滿江浮屍 忠魂義魄
都城東 말근 江에 펄〻 던지다 죽으니 落花岩이 여기로다
人心이 危懼하야 不顧死生 嚴戶長이 萬山蕭瑟 積雪中에
莫敢收屍 어이할고 衣衾棺槨 準備하야 그누가 指示하여
都城北 五里許에 一片靑山 萬古孤魂 肅宗戊寅 復位하니
頭緖업시 襄奉하니 寒心하고 寃痛하다 無往不復 이아닌가

顯德王后(현덕왕후) 精靈(정령)이로소
賜藥(사약)하던 그 날 나제
果然(과연) 暴逝(폭서)하난지라
世祖(세조)가 大怒(대노)하야
富平(부평) 戶長(호장) 건지내냐
民禮(민례)로 葬事(장사)하고
湯沐(탕목)하면 効驗(효험)볼가
溫泉(온천) 擧動(거동) 몃 번인고
東[illegible]峰(동[illegible]봉) 날노 올나
[illegible]雲天(운천) 바라본다

世祖(세조)께 顯靈(현령)하여
汝殺我子(여살아자)할지이면
昭陵(소릉)을 掘發(굴발)하야
漢江水(한강수)에 던졋고나
荒山廢水(황산폐수) 五十七年(오십칠년)
中宗癸酉(중종계유) 復陵(복릉)일세
可憐(가련)하다 王后宋氏(왕후송씨)
宋玹壽(송현수) 따님이라
貴(귀)치 마난 그 世上(세상)에
八十二年(팔십이년) 支離(지리)하다

我亦殺汝子(아역살여자)한다
南柯一夢(남가일몽) 깨나니
發陵(발릉) 前數日夜(전수일야)에
陵中哭聲(능중곡성)이 異常(이상)하다
晝魔中(주마중) 맛든 즘이
방울〻〻 擅風(전풍)되니
東大門外(동대문외) 燕尾汀(연미정)에
淨業院(정업원)이 住宅(주택)이라
趙氏孤(조씨고) 相模說(상모설)은
傳說(전설)에 듯엇든고

韓明澮碎骨親屬
目擊한일은差强하다
金宗瑞죽은後에
朝廷이生疑하야
匿聲來代무산일고
好問을擊殺하고
鍾城節制鄭種이가
突入斬之하얏고나

梁山人李澄玉은
咸吉道都節制라
朴好問을密遣하야
澄玉을代任하니
擧兵謀叛하단말가
大金皇帝自稱하고

勇力이絕人하야
金宗瑞가寄愛한다
澄玉이自思하되
節制는重任이라
五國城에定都하며
野人이服從한다

第七章 (世祖)

英果勇智 世祖大王
乃祖英雄 頻似하다
學問이 淵深하고
射御도 絶倫이라
平壤府 永崇殿에
太祖께 親祭하고
俗離山 文莊臺는
南土物色 질거보자
節度使 康孝文을
乘夜襲殺 하단말가

그 즉하 그 兄嫂와
다섯번 그 同氣를
星曆算數 音律宜卜
無不通之 神妙하다
牧丹峰 浮碧樓에
麗王詩를 次韻하라
儀仗이 簡率하야
沿路各處 民弊업다
觀察使 申㴐이는
亂民에게 被殺이라

사람잘 알어건만
福力이 綿遠하라
昇平煙月 歡樂으로
東巡西狩 하시고나
江陵府 五臺山은
御林台에 駐蹕하고
會寧節度使 李施愛는
擧兵作亂 무삼일고
咸寧軍官 成以乾이
間道密啓 하얏고나

魚有沼로大將이오 許琮으로節度使라
洪原北青連戰하야 賊衆이大敗로다
逆黨中李珠黃이 生縛施愛바쳣고나

陽川君許琮이는 身長이十一尺二寸
狀貌가魁偉하다 天使董越王敞이와
從容이酬酌할제 奉使入蜀말이나서

襄樊荊鄂數千里에 山川遠近戶口多寡
古今英雄割據並呑 瞭如指掌縷數하니
兩使가瞠目하야 執手嗟歎하난말이

許不知者天上也오 人間事는無不知라
十四年戊子九月 聖候가沈重하야
王世子傳位하고 翌日에升遐하니

春秋가五十二歲 四男一女두엇고나
王妣는坡平尹氏 尹璠의따님이라

第八章 (德宗)

德宗大王 누리던고 暴逝한 그 世子로 春秋가 二十歲에
懿德王后顯靈時에 成宗辛卯追尊이라 二男一女 두시고야
王妣는 淸州韓氏
韓確이 따님이라

第九章 (睿宗)

英明果斷睿宗大王 孝友가 出天하야 哀毁逾制成疾하야
世祖의 第二子라 父王이 晏駕時에 己丑至月昇遐하니

春秋가 二十歲요 在位不過一年이라
二子一女두엇고나 驍勇絶倫南怡將軍
太宗大王外孫으로 國家干城이아닌가
施愛乱建州役에 先登力戰頭功이라
柳子光의 誣陷으로 無罪寃死하단말가
鞫廳에서 取招할제 康純을 誣引하니
八十老者康純이가 不堪拷掠誣服이라
刑場에 함께갈제 康純이 크게블너
何寃으로 誣我하냐 南怡가 對答하되
天壤間寃枉키는 爾我가 一般이라
汝身이 首相으로 吾寃을 알것만은
一言相救아니하니 汝亦寃死可矣니라
元妣는 淸州韓氏 韓明澮따님이요
二妣도 淸州韓氏 韓伯倫따님이라
姦臣韓明澮는 再爲國舅異常하다

長女는 睿宗元妃 二十에 昇遐하고
二女는 成宗元妃 十九歲 喪事로다
네 罪惡이 貫盈하니 네 福力이 長久하랴

第十章 (成宗)

聰明英武成宗大王 德宗의 第二子라
霹靂이 나려쳐서 月山은 驚仆하고
山梯海航 琉球國이 遣使入貢하단말가

六七歲 되실적에 그 伯氏 月山君과
成宗은 自若하니 占此定嗣하엿구나
崇正學斥佛敎에 內外寺刹撤罷로다

貞熹大妃 入侍라가 二公子 坐間柱를
臨御二十六年間에 漠然山高水淸이라
其時에 有一人이 納土供佛하엿다가

子孫이貧窮이라 屢訟屢屈되난지라 親筆노判付하되
田土를차즈랴고 申聞鼓를울니거늘 供佛은求福인대
佛子가不靈하야 福還于佛子하고 持平에金彦辛이
子孫이貧窮하니 田還于本主하라 玄碩圭를劾奏하야
比於盧杞安石이라 汝今當死하엿스니 天然이엿자오대
成宗이親鞠하사 訴執之誤알겟느냐 臣이非誤執이오
天威가復震하사 나는德宗神宗이냐 一盧杞를沈惑하고
碩圭가杞石이면 唐德宗은暗主로서 宋神宗은庸君으로
一安石을任用이라 殿下께서寵信하니 大有過於二君이오
二人奸을兼한碩圭 臣愚는以爲호대 成宗이霽怒하사

臨死에不易辭는
儐也라稱歎하고
即時解加賜酒하사
使之察識하셧고나
禁苑春風賞花宴은
草木羣生共樂이라
宗室을日引하고
妓樂도隨之로다
太平故事조전만은
燕山主의耽於宴樂
耳目之習可惜하다
文貞公孫舜孝가
御床을어루만저
此座可惜流涕하니
成宗이하난말삼
吾亦知之不忍廢라
甲寅臘月廿四日에
成宗大王昇遐하니
春秋가三十八歲
在位二十六年이라
王子가十五兄弟
公主가十一이라
壬乱에掘變當해
玄宮까지일엇고나
元妃는淸州韓氏
韓明澮다님이오
二妃는坡平尹氏
尹壕의따님이라

第十二章 (燕山主)

一治一亂國運으로 燕山主가即位로다
甲寅年新立初에 朝野皆稱英主로다
刑曹判書金佔畢은 新主의眼睛보니
首領保全어렵도다 納官還鄕하여잇고
宣傳官朴松堂은 射鹿하는貌樣보고
先王愛物이러한가 臣下야할말잇나
即日에謝病하고 田園으로도라가다
所生母廢妃尹氏 坐廢하야賜死時에
拭淚하는斑血帨를 其母申氏믓뒤주며
吾兒가幸全커든 哀寃을告해주오
此時에그手巾을 潛通內人볼녀고나
廢主는幼時事라 昧然이不知하고

父王繼妣尹大妣를
親母도 만나앗다가
當日에 許琮許琛
百官收議被召되여
至今까지 그다리를
琮琛橋라 일흠한다
宰相家士族婦女
姿色만 잇다하면
光陽地皮匠家에
亡命逃走하얏고나

當場에 愕然慘怛
狂症이 도얏고나
橋上에 지나갈제
故意로 墜馬하야
千古에 업는 淫亂
奪人妻妾一手로다
免하리바이 업다
快丈夫李長坤은
鄙陋無恥尹珣이는
其妻가 經幸後에

廢妣時奉使諸臣
不問生死極刑이라
稱疾不參하엿더니
超然이 獨免하고
그叔母月山夫人
強奸自殺하단말가
其妻의 朝天兩脚
疑心업시 잡아재고
不次超遷資憲判書
登第한지 五年이라

重侍其妻如常하니
衣冠之辱極矣로다
宮女를石槽中에
牝牡之戱무산일고
天科地科조흔名目
興淸거려노난고나
人言을念慮하야
上疏擊鼓다엽신다
萋兮菲兮成貝錦이
千古志士流涕로다

成均館先聖位牌
高山庵에移送하고
採靑使를보니도나
公賤妻妾處女娼妓
極諫被殺金處善은
宦寺中에士夫로다
佔畢齋弔義帝文
禍胎가삼겻고나
柳子光咸陽楔板
嫉之甚이亂이런가

巫覡을召聚하야
隆祀所가되단말가
다친대로뽑아오며
聚紅院會綠閣에
屍體를餧虎하고
處善二字時諱로다
金濯纓史草記載
曺梅溪文集首錄
柳子光李克墩이
切齒하고揚臂하야

羅織鍛鍊 비져내니
戊午士禍 이아닌가
戊午幸免 하엿다가
也頂岩下 宿三宵에
鍾城謫死 鄭一蠹은
咸陽으로 返葬한다
是日에 風雨大作
天道가 無心하랴
白雪篝燈 孤坐하야
百世事를 尚論하니

佔畢齋는 剖棺하고
金濯纓은 凌遲로다
甲子다시 剖棺하야
暴屍三日 무산일고
鄭虛庵 어대가고
江上巾屨 뿐이로다
人心이 危懼하고
士氣가 沮喪하야
慷慨心 이절노난다
佔畢齋 그吊文이

朝天未還 曹梅溪는
千層浪裡 翻身出에
順天杖配 金寒暄은
以鬚啣口 就刑하고
搢紳間 一世名類
駢首就戮 다ᄒᆞ엿다
三千里內 講學舍에
讀書聲이 끈어졋다
有意하고 지엇다면
邦無道 危行遜言

成希顔朴元宗
慨然이擧義하니
昌山君成希顔은
望遠亭賦詩할제

平城君朴元宗은
月山夫人兄이로다
聖心元不愛淸源을
怨默唐家[illegible]詩하다

其妹의被汚劫死
變憤이後中하고
久不能決柳順汀은
黽勉從之可笑로다

第十二章 (中宗)

貞顯大妃令旨바다
晉城大君마자드려
爵稱可辭成希顔은
首建大策하엿스되

丙寅年秋九月에
中宗大王反正하니
靖國功臣策勳時에
頭功은固辭하네

黃童白叟萬歲聲에
市不易肆하난고나
廢主는降封燕山
喬桐에安置하고

十一年間亂政弊法
一新이改革하야
罪惡魁首柳子光을
反覆小人肝膽으로
關東으로竄逐하야
兩目全瞽斃로다
金佔畢金濯纓은
籍沒家產還給하고
百弊俱興更化初에
天災示警무산일고

出乎爾者反乎爾라
任士洪은剖棺斬屍
反正에投入하야
又參錄勳하얏더니
左議政鄭光弼은
還錄啓가意外로다
金寒暄鄭一蠹은
右議政贈職이라
一鷄三足雌化雄이
小人得勢兆朕인가

李克墩은追奪하고
尹弼商은還收田宅
戊辰에削勳하고
奇禍互至新扁子에
物議가嗟惋하야
다시削勳도엿구나
追賢誅惡名盡하니
咸服其明하고나
何代無賢沈貞南袞
柳子光이復生이라

適小가未清하야
己卯士禍무삼일고
反正濫勳七十六人
一啓에削錄한다
孔夫子大聖人도
三月大治하엿거늘
袞貞輩禍人手段
神出鬼沒奇妙하다
天作으로된글자가
無疑한讖書로다

東方五賢趙靜庵은
堯舜君民自期로다
大司憲三日만에
男女異路壯할시고
寥寥한이世上에
急走多蹟엇지하나
禁苑中無數木葉
走肖爲王넷글자를
宮人이採聞하야
上心이驚動하고

李之芳己定之論
危言으로停罷하고
一時名流新進少年
論事風發하단말가
羣邪가滿朝하니
慈母投杼可畏로다
甘汁으로써고오니
山虫드리緣蝕하야
神武門半夜中에
秘密를啓하단말가

흥후다 趙靜庵은
綾城末命 맛고나
乘機肆惡宋祀連은
安婢甘丁子息이라
安瑭은 處絞하고
處謙은 極刑이라
挺身厲聲申命仁은
義膽이 輪囷하다
咄咄書貴 무산일고
良心이 삼겻더냐

奇服齋는 付置하고
金冲菴은 賜死로다
그 上典 安瑭父子
必欲甘心 노화낸다
領議政 鄭光弼을
涕泣極諫하야잇고
重關複壁南袞이는
李林甫의 餘術인가
未死前 懷憂不樂
네 情狀이 可矜하다

其外에 一世名流
一網打盡 무산일고
吊客錄役軍簿를
罪案으로 鍛鍊하야
太學生李若氷等
入闕痛哭하고나
自知難免小人하고
平生草稿 焚棄하다
江西謫死 沈貞이는
惡積罪盈하엿스니

按律正罪當然하나
[illegible]結作罪目으로
筆跡을相憑키로
書籍을搜閱하니
中廟가惡之하사
刑死獄中하엿고나
甲辰至月十五日에
中宗大王昇遐하니
王子는九人이요
公主가十一이라

以此成案賜死되니
時論이不服한다
冊面所書一首詩가
放棄詩가可笑로다
그후其後에思遜이도
野人에見殺이라
春秋가五十七歲
在位三十九年이라
元妃는居昌愼氏
愼守勤따님이라

鍾樓에匿名傍書
思順이所爲런가
一聲雷雨撼天地에
香滿長安百萬家라
三父子非命誤死
天道가神明하다
壬辰에父王陵과
同時掘變當하고나
貪權樂勢愼守勤은
燕山主의妻兄으로

丙寅年(병인년) 反正時(반정시)에
朴元宗(박원종)等(등) 自爲身謀(자위신모)
力請廢妃(력청폐비)하엿더니

首先被殺(수선피살)도 뜻구나
後日(후일)에 念慮(념려)하야
英宗己未(영종긔미) 追復(추복)이라

二妃(이비)는 坡平尹氏(파평윤씨)
尹任(윤임)의 姊氏(자씨)시오
慶原大君(경원대군) 誕生(탄생)하니

王世子(왕세자)를 誕生(탄생)하니
三妃(삼비)도 坡平尹氏(파평윤씨)
尹元衡(윤원형) 姊氏(자씨)시라

尹任(윤임)은 大尹(대윤)이오
大小尹(대소윤)이 角立(각립)하야

尹元衡(윤원형)은 小尹(소윤)이라
乙巳士禍(을사사화) 釀成(양성)한다

第十三章 (仁宗)

仁宗大王(인종대왕) 卽位(즉위)하니
春宮(춘궁)으로 계실적에
端拱對案(단공대안) 無倦色(무권색)에

海東堯舜(해동요순)할시고
絳衣玉帶(강의옥대) 整正(정정)히 하고
嶷然(억연)이 成人(성인) 갓다

學問이高明하야
極域에優入하고
文王이禮陟後
水漿을不入口라
爾邦이褊小國에
不相稱이可恨이라
論化時享ㄴ下敎
爲民除弊懇切하다
王妣는羅州朴氏
州壙의다님이라

所養이正大하야
不襲於近習이라
詔問使張承業이
嘖嘖不已稱歎하고
必不久爲爾君이니
爾等이無福하다
春秋가三十一歲
奔走號痛百姓들이

文王에侍疾中에
目不交睫하야잇고
館傳다려하난말이
爾君은聖人이다
即位하신八朔만에
乙巳七月昇遐하니
哭葬으로相傳하야
當日에義州로다

第十四章 (明宗)

明宗大王即位하니 大行王介弟시라
遺命으로入承하니 時年이十二歲라
大王大妃文定王后 垂簾聽政하난고나

大小尹權利是非 燎原之火이아닌가
無知武夫尹任이는 東宮保護倡說하야
金安老蔡無擇等 腹心羽翼도야잇고

嗜利陰毒尹元衡은 大君을爲한다고
鄭順朋李芑等이 腸肚相連하얏구나
中廟의禮陟臨時 兩罪之를하엿스나

平城之園千歲舞라 去〻益甚猖獗하다
乙巳八月忠順堂에 六卿以上命招하야
尹任柳灌柳仁淑을 同日賜死라단말가

左議政柳灌이는
國事에盡心하고
左賛成李晦齋는
雖有學問人望이라
曲爲伸救한다하야
朔州流配되단말가
一時에名賢淸類
或竄或誅靡有遺라
不學則無識이니
學而勿應擧也하라

吏曹判書柳仁淑은
爲人이剛直이라
惑於邪論이라하여
江界謫所病卒하고
鳳城君鷄林君은
炮烙刑이何罪이며
林亨秀는臨刑時에
十歲稚子召戒하되
丁未秋良才壁書
鄭彦慤이袖進하야

尹任이同日死가
淸議에榮華로다
右賛成權冲齋는
帷幄中重臣으로
盧蘇齋白休庵은
絶島安置무삼일고
勿學書가可也니라
다시볼너라낫말이
乙巳에被罪諸人
從輕重加罪한다

寧越謫人李洪男은
壁書事에 寃死하던
李若水의 遺孤로서
鄭惟吉에 密書하야
其弟洪胤 誣殺하고
蔓延被逮康惟善等
三十餘人皆死하니
忠州一面幾空이라
忠州를 革邑하야
惟新이라 改號하고
忠淸道를 變稱하야
淸洪道라 하난고나
淸洪監司李溫溪는
李洪男의 誣陷으로
二千里甲山杖流
中道病死하단말가
大奸巨猾李芑보소
退溪를 誣告하야
削奪官職도 엿다가
其姪元祿力言하니
十餘日後復落하야
削奪命令還收로다
自古로 小人輩가
考終命은 못하니라
이시鴆自隨鄭順朋은
金吾郎을 誤捧하야
飮鴆徑斃하야 잇고
天道有知鄭彦慤은
馬上에서 落馬하야
一脚掛鐙馬奔蹄에

碎骨破腦肉漿되니
人咸快之하노고나
尹元衡을削爵하야
田里에放逐하고
李東皐로代任하니
朝野相慶ᄒᆞ올시고

順懷世子早卒하니
明廟가甚哀라가
収淚하고다시下教
乙巳忠賢將栽한데
余不能救하엿으니
世爲君王할수잇나

明廟의沖年政이
出於大妃하얏기로
羣奸이煽惑하야
禍亂一時하엿다가
萬機를親政后는
崇儒愛士寬後德이

權奸을剔除하고
傾嚮陶山하엿스나
匡格이無人하야
乙巳諸冤未伸이라
宣廟가嗣服初에
雪冤誅惡다하엿다

削勳議論發時에
特進官宋祺壽가
當日冤狀泣陳하야
悲動左右하노니라
金鶴峯이伏奏하되
祺壽가乙巳間에

權奸에依附하야 僞勳까지參錄하야
饒享富貴해오다가 到今聖明在上日에
悲辭苦語指陳하야 公論之名欲竊하니

眞是小人情狀이요 聞者縮頸하난고나
景福宮에火災나서 思政殿을延燒하고
王大妣와大王大妣 誥命玉冊沒燒로다

丁卯六月二十八日 明宗大王昇遐하니
春秋는三十四歲 在位二十三年이라
王妣는靑松沈氏 沈鋼이짜님이라

領議政李浚慶이 定嗣事를稟命하니
已不能言하신지라 承命을한것갓치
德興君第三子를 謹奉敎하오리라

慶會南門出坐하야 都承旨李陽元과
注書에黃大受를 急召하야泣謂하되
社稷洞速徑하야 阿只氏를迎來하라

黃注書하난말이 承傳色을急히불너 德興君第三子로
言語往傳不可하오 內殿에入啓하야 入承大統可也라는
十二字를書出하야 黃注書復請하되 擧簾諦視한然後에
具侍衛往迎할제 宮內兄弟數人이라 環拜奉入定位하니

第十五章 (宣祖)

宣祖大王이아닌가 時年이十二歲라 中外가帖然하니
中宗大王孫子시로 王大妃垂簾하다 首相得人功이로다
東皐가素有重望 西賓廳出入할제 百僚가傾想하야
兩錄事扶腋하고 白髮紅臉조흔風彩 此人在에國無憂라

處事雖或疏漏라도
人不爲非하난고야
金孝元衾枕具가
册室內에잇난지라
樓房郞僚六七年에
心短義謙하얏더니
義謙儕輩老宰들은
報復인가疑之하야
前後輩互相不協
東西分黨이아니냐

天下桃李盡在門에
狄梁公과彷彿하다
心鄙之하엿더니
其後에吳德溪가
義謙之弟忠謙이를
銓郞薦을또하거늘
小人으로指目하고
孝元儕輩新進들은
英庵家는在西하니
右沈者는西人이요

沈義謙舍人時에
尹元衡집을가니
銓郞으로薦하거늘
義謙이가沮遏하야
天官豈是戚家物가
孝元이가不許한다
害正한다指目하야
義謙을攻駁하니
省庵家는在東하니
右金者는東人이라

四年前東皐遺劄
朋黨漸을憂慮하니
藏頭匿形鬼蜮說
今人將死其言也惡
西人中에老論少論
老論은金錫胄라
南人은柳西厓요
北人은李鵝溪라
南以恭이小北이요
李爾瞻이大北이라

無形之說做出하여
貽禍士林한다하여
極口醜詆하엿더니
至是乃驗하얏고나
宋尤庵이宗長이오
少論은趙持謙이
南人中淸南濁南
許穆이淸南이요
洪汝諄은骨北이요
李山海가肉北이라

追奪官職하라한다
李栗谷이上疏하야
許草堂은東人領袖
朴思庵은西人領袖
尹明齋가宗長이라
東人中에南人北人
社稷洞이濁南이라
北人中大小骨肉
其外에千黨萬派
朝著가寧日無라

牛李가 相攻하야
唐室이 亡해지고
己丑年 冬十月에
鄭汝立이 伏誅로다
中間에 改頭換面
趨附東人 무산일고
智異山 石窟中에
秘密이 藏置하고
劉桑皮 塡馬鬣에
日久皮合 天作갓다

洛蜀이 朋黨하니
宋室이 衰亡하고나
汝立이 早年登第
清顯을 歷敬하고
文識으로 外飾하고
內懷陰志 已久로다
托以遊山 發見하니
浚井得石이 아닌가
吉三峯 神兵之說
誑誘愚民 하단 말가

三百年 亡國禍胎
太息流涕 이 아닐가
搢紳士友 廣交하야
牛溪栗谷 最親이라
木子亡 奠邑興을
玉石에 刻해내야
桑生馬鬣 家主爲王
八字童謠 지어내고
延陽樓 壯宋翼弼은
甘丁의 孫子로다

海西로出沒하야
賊魁爲首무산일고
武夫勇士嘯聚하고
部伍를團束하야
官軍을調發하야
鎭安山谷圍住하니
逆賊을利用하야
殺害良善무산일고
至慘絶慘李東岩은
老母稚子可憐하다

汝立이平生長技
博通雜術하난고나
是年冬末等待하여
擧兵直犯하잣더니
汝立이勢窮하야
以劍自殺如牛吼라
崑崙山에불이타니
玉石俱焚하단말가
自己惡名免하라고
歸罪他人可笑로다

兵亂날줄推知하고
乘時斗發計劃으로
載寧郡守朴忠侃等
聯名狀報하얏고나
逆屍를追刑하고
朴忠侃等策功한다
崔守愚는庾死하고
鄭困齋는竄死로다
構殺忠賢矯誣賢相
大哉라王言이며

無雙한 一時名流
衆人色目 怨讐로다
未熟柿李栗杏과
自明한 成牛溪는
水陸軍兵 二十萬을
三十六將 거나리고
西門에서 拒戰타가
中丸而死 하단말가
君臣義重 父子恩輕
南面에 手題하야

汝之이를 親하다고
金東岡을 遠竄하고
命數에 關係런가
置之勿問 異常하다
十三日 曉霧裡에
釜山下陸 하얏고나
東萊府使 宋象賢은
限死하고 守城한다
家奴를 부쳐주어
歸報其父 하라하고

金東岡을 薦하다고
盧蘇齋도 連坐로다
乱이 낫다 乱이 낫다
壬辰四月 乱이 낫다
釜山僉使 鄭撥이는
盡率兵民 守堞하야
南門樓에 놉피올나
督戰半日 城陷이라
被朝服 西向再拜
危坐受刃 하단말가

南門上亘天紫氣
數年不滅壯할시고
[illegible]嶺南踰竹嶺에
賊首以徇하얏고나
仁同善山尙州드러
李鎰軍을大敗하고
中路를會合하야
鳥嶺을넘어가고
沿嶺釰戟千里不絶
鼓聲이相應하고

左兵使李珏이는
恇怯症이삼겻던가
平秀家는東路로
三路로分兵하여
一路는左路되야
長鬐機張蔚山慶州
一路는右路되야
金海星州知禮金山
沿路에據險蔽沒
夜則擧火相應한다

在外倚角托言하고
蘇山出陣무산빈고
一路는中路되며
梁山密陽淸道大邱
永川新寧義興軍威
比安龍宮聞慶으로
秋風嶺을넘어서서
京城으로轉向한다
都巡邊使申砬이는
金汝[illegible]李로다

尙方釼 바다들고
忠州로 나려온다
八千兵이 壯士가
水中魚鱉되단 말가
東廂에 出御하사
西幸之計 決斷하야
王妃는 步行으로
宮女數十侍衛로다
金郊驛을 當到하니
京城不守急報온다

萬夫莫開天險之地
鳥嶺堅守 아니하고
折戟沉沙鉄未銷에
古戰場이 依俙하다
千里龍灣何處是오
大駕播遷하단 말가
沉沉暗夜黑雨中에
咫尺을 不分이라
廟社主는 埋安하고
蒼黃顚倒從行한다

長江廣野彈琴臺에
背水陣이 무산일고
忠州敗報을 나오니
朝廷이 大震이라
敦義門 急히 나셔
戎服執鞭하시오나
都承旨 李恒福이가
執燭前導親히하라
副元帥申恪이는
楊州蟹峴陣을 치고

敵兵을邀擊하야 六十級을斬獲하니
乱作後始有此捷 遠近이聳動한다
捷書가未及하여 斬首한일可惜하다

義兵將趙重峯은 七百義士거나리고
清州城을收復하고 行在所로向하다가
錦山情報急히듯고 引兵還赴하얏구나

全羅巡察權慄이와 約日齊擧하엿더니
移書改期하옵거늘 重峯은不知하고
錦山城下進逼하니 敵兵이詷知하고

大兵으로逆擊하야 寡不可敵衆이라
重峯이下令하되 死當無愧一義字라
援枹鼓之督戰하야 士爭趨死하난고나

敵兵死者過半이나 矢盡力盡無乃何라
張營白將卒들이 激하야 [illegible] 環立하야
無一人離次하고 面色如生同死로다

睢陽城張巡許遠
江淮保障이아닌가
關西名妓桂月香이
敵將의愛妾되여
兄乎兄乎家呼한다
金應瑞即應하고
平行長의部將으로
神勇이絕世하다
敵將頭를腰佩하고
敵陣을潰出할제

都元帥金命元과
防禦使金應瑞와
脫身之策万無하다
敵將에게懇請하야
桂月香을隨入하니
敵將이睡熟時라
頭已早落하엿으나
手釰을勇擲하야
應瑞의勇으로도
保全할수全혀업서

平壤城을進攻하야
三戰不利退陣한다
親屬尋見한다하고
城上에周行하며
凶獰한그敵將은
一釰斬之하얏고나
聲如巨雷撼天地에
釰刃半沒柱腰로다
流涕하고桂月香을
釰頭孤魂지엇고나

千秋에빗난義烈은
娼妓中에잇단말가
熊峙에遣兵하야
敵軍을擊却할제
陣前에射殺하고
力屈死之하얏고나
諸軍을團束하야
終日據險交戰하다
敵兵이大敗로다
敵中이每稱하되

附敵儒生鄙陋輩는
桂月香이可愧로다
金堤郡守鄭湛이는
大駕播遷하신後로
朝廷이追贈하고
贈官旌門하시엿다
同福縣監黃進이는
發無不中弓法이오
朝鮮地三大戰에
梨峙가爲最러라

都元帥權慄이는
我國에名將이라
涕泣誓死하엿더니
紅旗下白馬將을
敵兵이又至하야
梨峙를犯하거늘
魏大奇孔時億은
挺身當前健鬪하사
全羅監司除拜日에
西向稽首痛哭하고

京城을圖復하야
四千精兵親領하고
數萬敵兵擊退하여
中興頭功도얏서라
玄風昌寧留屯敵이
連戰連敗撤退하고
北道評事鄭文孚는
關北에保障이요
單旅之事素昧하나
徒以忠義激勵로다

陽川渡를急히건너
幸州에留陣하고
查大受戰處보고
此與將軍歎服한다
訓鍊奉事權應銖는
永川城을收復하야
陽城庶人洪季男은
收拾義兵復讎한다
防禦使郭嶸이와
錦山敵을進攻하야

騎驢人을奉遇하나
女刺客을獲殺하고
紅衣將軍郭再祐는
火旺山城陣을쳐서
左右道가始獲全이
二將의力이로다
湖南義將高霽峯은
年紀가衰老하고
官軍이先潰하고
義兵이從風이라

墜馬ㅣ逸하단말가 所乘馬로騎之하고 馬健先出하엿다가
從事官安瑛이는 從事官柳彭老는 策馬還入하난고나
霽峯이顧謂하되 爾等은馳出하라 翼蔽同死壯할시고
吾志는已定하니 二從事不去하고 그長子高從厚가
餘兵을收拾하야 重峯之子趙完堵와 同志로相應하야
復讎倡義旗號로다 彦秀之子洪季男等 縞素從軍하난고나
右巡察使金鶴峯은 人心波動念慮하야 柳西厓가伸救하야
通信副使復命時에 敵情을諱奏하고 受命南下하얏고나
平生未解弓馬로되 一隅晋陽逾年保全 癸巳四月病卒軍中
至誠으로招諭하야 練卒之功이아닌가 天不祚宋可奈何오

月橫洞前大樹亭은
權奉하던遺蹟地라
李長孫을指揮하야
新火砲를剏造하니
鐵丸이星碎하야
中仆即斃不知數라
忠義衛趙雄이는
勇敢이絶人이라
敵兵掩其不備하야
中丸落馬하단말가

三百年蒼然老樹
多少行人流涕로다
謂之飛擊震天雷라
敵陣中에投入하니
一陣이眩倒하야
西生浦로遁去로다
走馬上에立馳하야
平地갓치遊樂한다
爲敵所獲斷其手足
至死罵不絶[illegible]다

慶州判官朴毅長은
東都復城壯할시고
自內로砲發하야
天地가震動하고
神出鬼沒그른兵器
後無用者可惜하다
五百壯士召募하야
大霧裡에行軍할제
京畿監司沈岱보소
朔寧당에留陣하고

京城收復할양으로
城中人과約束한다
懸首鍾街五六十日
面色如生凛凛하다
嘗爲府使有遺愛와
吏民이聞至하고
門樓上高坐하야
慨然이下令하되
堂堂한丈夫身이
誓不汚敵刃이라

其中亦有爲敵耳目
敵軍이詗知하고
吏曹參議李廷馣이
避兵行至延安하니
皆願死守하노고나
行伍를部署하야
今日에將與卒이
死生을決할지라
一軍이感泣하고
三日을死戰하야

出其不意掩襲하야
爲敵所害하엿고나
該府使는已走하고
敵兵三千猝至한다
城門을堅閉後에
其下에積柴하고
万一에不幸커든
積柴에縱火하라
敵軍이敗走하고
招討使로追殺한다

安陰縣監郭䞭이는
黃石山城固守한다
敵兵이大至하야
晝夜督戰城陷이라
前郡守趙宗道가
居常에하는말이
崆峒山外生猶喜나
巡遠城中死亦榮을
重各百斤雙鐵椎로
空中으로飛走한다

體察使李梧里가
黃石은湖嶺咽喉
胡床에踞坐하야
神色이自若하고
食祿之臣丈夫身이
死當明白이라하고
이날에郭䞭이와
同時節死하얏고나
業儒謙誨無人知라
守制居家하엿더니

敵兵이必爭地라
郭䞭으로직혓고나
그二子履常履學
抱持罵敵同死로다
黃石山城드러와서
一首詩를지어내니
忠勇將軍金德齡은
万夫不當神勇이라
李貴等이疏薦하고
世子宮이下旨敦諭

同志壯士崔聘齡과
五千精壯召募하야
靑陽定山六邑轉陷
中外가震撓한다
領兵來赴하고나
賊衆이氣沮하야
金德齡은宿約잇고
權慄崔湖洪季男도
徐渻을나려보내
德齡을拿就하니

千里白馬所向克捷
一國이聳動한다
洪州城을進迫하니
洪州牧使洪可臣이
其麾下林德明이
斬首來獻快한시고
通謀는다되엿다
無根之說藉藉하고
徐渻이狀聞內에
權慄이德齡으로

鴻山賊李夢鶴이
乘時作亂하단말가
召集衆將堅守하고
水使崔湖金德齡等
夢鶴이初起時에
誑惑其衆하단말이
其後에賊黨文書
金崔洪三字잇다
夢鶴을命誅한즉
四日遲留觀望成敗

八字가 斷案이라
猜忌하는 一時相이
起兵三年無寸功은
猜忌者의 做言인가
德齡이 拿鞠時에
鄭藥圃는 伸救하고
朝臣今日寧復西東
그 時를 인거보소
主惡이 未悛하야
朋黨이 不解하고

刑吏를 密囑하야
無辜杖殺하단말가
檀道濟壞汝長城
不幸近之寃痛하다
柳西厓는 無言이라
無言이 罪案인가
無賴土賊宋儒眞은
謀逆伏誅하얏고나
賦役이 煩重하야
生民이 不安이라

功未就名大盛이
德齡의 身災로다
敵中이 聞之하고
酌酒相賀하난고나
咻〻之說 무산일고
宣祖大王龍灣詩에
人心을 煽動하야
全州密書凶慘하다
鷹揚牧野는
雖有愧於夷齊하나

弔民伐罪는
實有光於湯武로다
晉州兵使金時敏은
知仁勇이兼全하다
敵兵이分作三隊
大擧來圍하는말가
昆陽郡守李光岳이
百餘兵뿐이로다
西城樓에彈琴却敵
諸葛孔明手段인가

兵曹判書李漢陰을
藉以爲言무산일고
修器械繕城池에
湖嶺保障이아닌가
鐵桶갓치三匝四匝
殺氣가連空이라
軍中을約束하야
妄費一箭아니하고
樂工을分付하여
門樓上에吹笛하여

漢陰이席藁待命
四十日不許한다
金山以下留屯敵이
望風逃遁하얏고나
城中에孤軍弱卒
三千兵에不過하고
營中에偃旗息鼓
寂若無人不應한다
三絃六角風流소래
晏然無事閒暇하다

敵將(적장)의 陰計(음계)보소
雲梯數千(운제수천) 暗遭(암조)하고
其知如神(기지여신) 金兵使(김병사)는
軍中(군중)에 下令(하령)하되
女墻內(녀장내) 多置釜鼎(다치부정)
白沸湯(백비탕)을 等待(등대)하라
山棚雲梯(산붕운제) 忽起(홀기)하야
魚貫蟻附(어관의부)나오고
大砲大石(대포대석) 所觸處(소촉처)에
無不殲粉(무불섬분) 靡滅(미멸)이라

三層山棚(삼층산붕) 臨壓(임압)하야
一時齊登(일시제등) 城(성)을 넘고
今夜三更(금야삼경) 敵必來(적필래)라
火箭(화전)을 準備(준비)하고
軍中(군중)에 말근 鐘(종)이
三更(삼경)을 報(보)ᄒᆞ나
土行孫(토행손)의 技術(기술)인가
平地(평지)로 突出(돌출)ᄒᆞᆫ다
白沸湯(백비탕)을 大注(대주)하니
一道熱河(일도열하) 勢傾湫(세경추)라

地圖(지도)를 鑿通(착통)하야
從地出(종지출) 하려ᄒᆞᆫ다
火藥封紙(화약봉지) 大砲大石(대포대석)
城上(성상)에 列置(열치)하고
東南角(동남각) 吶喊聲(납함성)이
天地(천지)가 震動(진동)하고
火箭火藥(화전화약) 亂發(난발)하이
雲梯山棚(운제산붕) 盡燒(진소)하고
長平坑卒(장평갱졸) 三刑殺(삼형살)에
共同墓地(공동묘지) 天作(천작)[illegible]

東方이欽明時에
敵勢는小歇하나
敵兵이一敗後에
次骨之怨갑흐다고
諸將이力盡하야
畢竟陷城되단말가
前佐郞梁山璹
北向再拜痛哭하고
兩敵將을엽헤끼고
李宗仁이死於此라

不幸이金兵使가
左額中丸身死토다
大軍을다시몰아
掀天動地다라든다
倡義使金千鎰이
與其子象乾이와
投江以死허여잇고
金海府使李宗仁은
大呼投江하난고나
巨濟縣令金俊民

李光岳이代守하야
敵兵이敗走한다
九晝夜百餘戰에
外援이不至하고
慶尙兵使崔慶會와
復讐將高從厚와
時年이十九歲라
轉聞至南岸하야
終日馳馬巷戰하야
敵衆이披靡하고

丸劍皆不近身(환검개불근신)이라
竟不知死處(경부지사처)로다
敵死者(적사자)도 相當(상당)하야
積屍(적시)가 丘山(구산)갓다
陷城(함성)하기 數日前(수일전)에
一老嫗(일노구)가 悲泣(비읍)한다
全城却敵(전성각적)하엿으나
今日(금일)에 倡義使(창의사)는
傾城傾國絶代佳人(경성경국절대가인)
本府官妓論介(본부관기논개)로다

大小風雪三百戰(대소풍설삼백전)에
古今天地幾雙魂(고금천지기쌍혼)고
夷城郭燒廬舍(이성곽소여사)에
一城爲墟可憐(일성위허가연)하다
兵微將寡(병미장과)하것만은
前日(전일)에 金兵使(김병사)는
五六萬精兵(오륙만정병)이오
數十員勇將(수십원용장)으로
敵軍(적군)이 矗石樓(촉석루)에
勝戰宴(승전연)을 排設(배설)한다

城中男婦六七萬人(성중남부육칠만인)
流屍塞江江不流(유시색강강불유)라
禍敗慘義烈著(화패참의열저)가
亂作以來第一(난작이래제일)이라
號令(호령)이 嚴明(엄명)하야
將卒(장졸)이 一心(일심)이라
令出多門煩瑣(령출다문번쇄)하니
輒不知其死所矣(첩부지기사소의)라
一隻琴(일척금) 손에 들고
凝粧盛飾蓮花步(응장성식연화보)로

樓下長江江畔岩에
從容이 올나 안자
樓上에 醉한 敵將
精神이 恍惚하여
金樽에 술을 勸해
泥醉가 도얏고나
羅衫소매 열는 드러
敵將목을 굿게 안고
竹林中 數間草屋
論介祠堂 녀기로다

黃河詞한 曲調에
江上數峯 푸르럿다
花枝에 狂蝶體로
大踏步 나려 온다
東風楊柳 不勝情에
이러서 춤을 추니
滄海갓치 집흔 물에
풍덩실 떠러젓다
忠烈이 彌漫八域
民不耕種 數年이라

如花如月 고은 態度
迷魂陣이 여기로다
遠山眉 半만 들고
琅然이 笑迎한다
敵將亦是 醉興으로
東仆西顚 對舞한다
長江萬古 濁滔滔에
義妓岩이 아닌가
鋒鏑死 飢饉死에
禍不單行 엇지하나

石尙書後室夫人
雲南地方사람이라
夫人이處子時라
自身을放賣하야
其時譯官洪淳彥이
榜을보고드러가니
女子가推托不得
吐出本情하난지라
慨然이遜謝하고
如此이하실진대

그父親이石尙書
旅館中에病卒하고
父親返葬을後
自殊하기決心하고
幽閑貞靜窈窕淑女
士族婦女分明하다
譯官이起身하야
失手햇소未安하오
結誼男妹하사이다
姓名이나일너주오

無強近無家產에
返葬之道全無로다
靑蕪皃樣効嚬하야
千金榜을못칫더니
心中에大疑하야
至再至三窮問하나
懷中千金내여주며
葬費나補用하오
姓名은무엇하오
朝鮮國사람이오

그女子(녀자)가姓名(셩명)몰나
徹天之恨(쳘텬지한)되엿더니
門外(문외)에서竊聽(졀텽)더니
十餘年前(십여연젼)듯든音聲(음셩)
아닌가무러보오
譯官(역관)이沈吟良久(침음양구)
婦人(부인)이親(친)이마자
半(반)우름半(반)우슴에
行廊(행낭)에가지시오
譯官(역관)이바다드니

鄭西川(뎡셔쳔)今般行(금반행)에
天佑神助(텬우신조)ᄒᆞ라왓네
耳邊(이변)에歷〻(력력)하다
侍婢(시비)나와傳喝(젼갈)하되
此等事(차등사)는잇사오나
尊前(존젼)에惶悚(황송)하오
哥〻(가가)를相逢(상봉)하니
今日死亦無恨(금일사역무한)이오
報恩(보은)二字(이자)繡(수)를노아
天下(텬하)에無價宝(무가보)라

石尙書宅內(셕샹셔댁내)에서
朝鮮使臣(조션사신)所聞(소문)듯고
朝鮮(조션)에서오신譯官(역관)
某年分靑樓事(그연분쳥누사)를
分明(분명)이그러진대
內堂(ᄂᆡ당)으로드러오오
蜀緞一疋(촉단일필)내여주며
내의平生精力(평생졍력)이라
小國人(소국인)이아니러라
石尙書(셕샹셔)도嗟歎(차탄)하다

國家大事順成키는 石尚書의恩德이오
石尚書가盡力키는 그婦人이功이로다
神宗皇帝准許하사 大擧來援하신고나
兵部侍郎宋應昌을 軍門經略하이시와
二萬名을先發하고 大軍은陸續繼後
同知에李如松을 提督軍務拜하시고
楊元으로左脇大將 王有翼査大受等
九將軍을統率하고 李如栢을中脇大將
任自強李芳春等 九將軍을統率하고
張世爵을右脇大將 祖承訓駱尚志等
九將軍을統率하다 方侍春이中軍이오
韓宗功은旗鼓로다 劉黃裳이贊劃이오
文維新은督餉이라 精兵이五萬이오
旌旗金鼓千里로다 李提督世德보되
其先은我國之人 曾祖父가殺人하고

鐵嶺衛로 逃入하야 其父親李成樑이
軍功을 屢立하야 寧遠伯을 封햇고나
大軍이 東發時에 盡力하라 面戒한다
星眸釣眉凜凜威風 紅戰袍를 너입고
紅明橋 드러안자 三軍을 號令한다
山海關에 立馬하야 東征壯士盟誓하고
壬辰臘月廿五日에 鴨綠江을 건너고야
龍灣館 드러가서 國王께 行禮하고
安州城 到着하니 領議政 柳西厓가
平壤地圖袖進하니 虜在目中이아닌가
癸巳正月初八日에 平壤城을 進圍하니
敵勢가 猖獗하다 牧丹峯 最高處에
靑白旗를 高懸하야 起伏進退暗號하고
万餘衆丁壯兵이 城上에 擺立하야
鹿角柵子前植하고 霜雪갓흔 長槍大刀

向外齊刃如蝟毛라
以死拒守하난고나
駱尙志가奮勇先登
浙兵이鼓譟從之
鼓聲은震天하고
火箭은流星이라
斬獲이一千三百
生擒이二名이라
天兵이乘勝縱火
平壤城이洪爐로다

三協大將號令하야
分統各部擺陣하고
普通門七星門은
天兵이드러가고
騎馬步兵雲集하고
槍刺劒斫斬殺이라
單騎가四萬五千
馬匹三千奪取로다
燒死者又萬餘衆에
火葬場所도얏고나

提督이大呼하야
先登者를賞하리라
含毬門衝要地는
我軍이攔入한다
四面으로蹴踏하니
敵衆이大潰로다
我國人被擄男婦
一千十五救出이라
平行長이勢窮하야
無欄歸路哀乞하니

窮寇致死 念慮하야
華容道에 曹操놋듯
提督은 右北이라
我國이 奏捷할제
坡州에 올나왓라
我國將 高彦伯이
三勝將이 相繼馳赴
亦率家丁 數十이라
礪石嶺後 埋伏大衆
嶺上只有 數百이라

一路伏兵 거더주니
敗戰餘卒 追去로다
李五峯이 製進하야
兩邊을 鋪張無欠
碧蹄驛에 遇敵하야
百餘級을 斬獲하니
碧蹄로 進向할제
惠陰嶺 넘어서니
家丁을 指揮하야
分作兩翼 前進하니

捷音을 飛報後에
南北軍이 爭功하야
南北將이 盡歡한다
提督이 進兵하야
提督이 聞之하고
只率家丁 수千餘하고
馬蹶墜地 무사인고
敵兵이 詗知하고
敵軍이 下山相逼
天兵을 誘引하야

泥濘中에 引入하고
嶺後伏兵猝至하니
坡州로 還入하야
雖隱其敗하엿스나
甚至於足蹶李蕡
平壤으로 退兵한다
為上國替死鬼라
在所矜惻할지언늘
敵中에 往來하야
講和만 主張하고

無器械數步家丁
無敢當其鋒者로다
神氣가 沮喪도여
更無鬪志하단말가
當初에 平秀吉이
其意不在本国이라
東渡不過十箇月에
平壤城一戰後에
我國에 君臣上下
非理壓迫무산고

一軍이 覆沒하고
提督은 僅以身免
柳西厓金省菴等
觀勢更追力請하야
一超直入大明國에
假途할而已로다
奇功이 更無하고
沒識한 沈惟敬을
吳維忠劉綎은
本国을 [illegible]

癸巳年秋九月에 振旅還京하얏고나
延詔門外弘濟院에 闕忠壇을 高築하야
三江에 戰亡將卒 忠魂義魄報祀한다

傷心暘水十月天에 車駕還府하신고나
月山舊宅行宮이오 沈義謙家東宮이라
沈連源家宗廟되여 苟且草率莫甚하다

十行綸綍哀痛敎文 中外에 頒布한다
城郭이 猶存하나 向山河而慘目이오
威儀를 復覩하니 對父老而傷心이라

天將落泰先否하니 盍圖濟于艱難이며
事必淺危後安하니 冀勉副於終始로다
蜀中之駕雖返하나 會稽之膽猶嘗이라

禮判으로 引率儒生 文廟墟에 會哭하고
僧徒를 募集하야 都城尸骸收瘞한다
王世子分朝하야 湖西에 撫軍하고

三道體察尹斗壽等
陪從으로隨行한다
或言王이信惑群小
前車之覆後車戒라
使爾侍而不備리오
脫有他變할지라도
當分其國爲二三에
視其能禦付之한다
柳西厓도泣下하야
好言仰慰하얏고나

行人司憲奉勅하야
皇旨를來宣이라
大兵을已撤하니
王其還國治之하라
朕不能爲王謀라
魏學曾上本中에
柳西厓를夜召하사
酌酒相決하신말삼
愚矣天朝平秀吉은
請和意思本無하고

喪敗之因追思하니
豈盡適然之數리오
尺寸之地朕無與라
其可越援爲常하야
朝鮮이不能禦倭
中國에貽憂하니
知有此事已久하니
予之面卿今日而已
請貢請封皮膜說話
嘗識에不過하다

無端이 沈惟敬이
墮其術中可笑로다
皇上이 震怒하사
賣國彌縫罪目으로
京城에 立祠하야
永世不忘하난고나
島山은 東路되여
淸正이 據守하고
兵船은 蔽海하고
槍劒은 參天이라

詔冊正使 李宗誠은
恇㤼逃還무산일고
沈惟敬은 棄市하고
冤痛하다 石尙書도
丁酉年春正月에
再亂이 나단말가
順天은 西路되여
平行長이 據守하고
六年疲弊無餘地에
抗敵하기 方略업다

詔冊上使 楊邦亨이
直吐顚末還奏하니
醜虜損威論罪되여
瘐死獄中하단말가
沿海千里要害地에
分作三窟相應하다
泗川은 中路되여
石曼子가 據守하니
權愜을 陳奏使로
天朝告急已甚하다

感激한 皇恩이야
再擧東援하시고나
楊經理受命하고
鴨綠江을 急히건너
楊元은 南原이오
李國基는 星州로다
平行長平義智等
南原을 侵犯하야
接伴使鄭期遠等
盡被所殺하단말가

楊鎬로 經理拜해
三軍을 指揮하고
平壤에 屯駐하고
諸將을 部分하야
游擊將軍陳愚衷은
全州에 出駐하고
乘夜肉薄登城하니
城中이 大亂이라
南原이 旣陷하니
京城이 震駭로다

邢玠는 總督이오
麻貴는 提督이라
京城은 根本地라
麻貴가 屯守하고
副總兵吳惟忠은
忠州를 固守한다
楊元은 潰圍而走
總兵中軍李新芳과
楊經理急報듯고
京城에 馳入하야

觧生楊登牛伯英等
五將을請發하야
稷山捷報올나오니
中外가稍定한다
伴鷗亭大和江을
一時예攻拔하니
陰雨가忽降하고
生力救兵且至로다
兵部主事丁應泰는
楊經理를誣劾하야

稷山西金烏坪에
敵兵을大破로다
四萬大兵自領하고
島山을進圍하야
島山이困在垓心
粮盡井竭하얏고나
上方谷司馬懿를
成事在天可歎일다
欺罔僨事二十罪에
五罪는本國事라

人心이洶懼하야
荷担而立하엿드니
躬擐甲冑督戰하야
四百六十斬獲하고
淸正이勢窮하야
將欲自殺適其時에
不如一再圖後擧하야
解圍而退하단말가
卞誣使臣擇定할제
上意在於西厓로다

毋老不敢清行하니
意甚不平하셧고나
下誣가大事오나
夫人可卞할거시요
李梧里로陳奏大使
一番明卞하엿드니
濤張爲說奇巧하다
國王이避殿席藁
閣老沈鯉點頭하야
禮儀之邦稱歎하다

包藏禍心鄭仁弘이
上意를窺察하고
今日에軍國機務
柳某不可暫時離라
應泰가愈怒하야
速上章擠誣本國
李白沙가陳奏大使
李月沙로副使로다
皇上이降旨하사
明卞快雪하이시고

乘機中傷무산일고
李梧里自願하야
賤臣이庸愚하나
敢請一行하나이다
事倭節目誘倭入犯
稱祖稱宗許多罪名
月沙가奏文手草
明白老實無隱하다
擧動年庚丁應泰는
革職爲民하시엿다

李月沙大文章이 名動天下하엿고나
統制使李舜臣은 伯仲之間見伊呂라
經天緯地才略이요 補天浴日勳功이라
加里僉使井邑縣監 下位예沈屈터니
柳西厓推薦하야 全羅水使超拜로다
龜船을創造하니 神明不測造化로다
軒轅皇帝涿鹿戰에 蚩尤잡든指南車요
諸葛武侯祁山戰에 運糧하든木牛로다
船上에鋪板하야 龜背와恰似하다
中爲十字細路하야 我人이通行하고
餘外예簇立刀錐 精利가無比하다
戰時예覆以編茅 刀錐를不露하고
前作龍頭하엿는대 其口가銃穴이요
後作龜尾하엿스니 尾後銃穴六이로다
其底에藏兵하야 四方으로發砲한다

敵陣中橫行하니
進退捷速如飛로다
所向에無敵하여
以此常勝하노고나
閑山島에大戰하야
三十九隻多殺敵船
鮀梁島에陣을옴겨
敵船을迎戰하야
全船을盡滅하니
軍聲이大振하다

敵軍이超登하면
刀錐에亂刺하고
二十隻만加造키로
備局에懇請하니
一把火로燒蕩하고
左肩에所中流丸
層樓上앉은敵將
應弦落水하노고나
右水使李億祺가
盡領舟師來會하야

敵軍이掩襲하면
火砲가齊發이라
後患이念慮런가
置之勿問하단말가
戰罷후에挑出하니
一軍이皆驚이라
三十隻船擒破하고
永登浦에追擊하야
見乃梁偏小海口
敵兵을만나고나

毒龍潜處水偏淸에
危險할결嶺度하고
鼓噪吶喊火砲소래
海上千山무허진다
我軍이乘時하야
左衝右突掩殺하여
四十隻을又燒한다
淸正이當初計劃
見乃梁此一戰에
斷其一臂도얏고나

佯敗而北다라나니
敵軍이乘勝追趕한
忽地에狂風暴雨
敵陣中에震動하니
七十餘隻全滅하니
腥血이漲海로다
水陸이合勢하야
龍灣을目的地로
朝廷이相慶하고
舜臣을加資하야

旗鼓를다시돌며
一死戰을決斷하니
隨波逐浪져敵船이
救死不瞻顚倒로다
安骨浦大洋中에
救援兵을逆擊하야
舟師를大發하야
風雨갓치모라온다
三道水軍統制使로
閑山島에移營한다

淸正等이 大忌하야
反間을 놋난고나
狡詐한 要時羅로
金應瑞로 密言하되
今日에 和事不成
皆由於淸正이라

某日渡海할터이니
朝鮮名將李舜臣이
海路에 邀擊하면
全功을 可獲이라
金應瑞 馳啓하야
李統制를 密諭한다

統制의 明見으로
見欺할 理萬無하다
軍中不聞天子詔라
按兵不動하얏고나
要時羅 又至하야
佯爲恨惜不已로다

南以信을 나려보내
形止를 廉訪하니
以信이 回奏하되
舜臣이 逗遛失機
李統制를 拿鞫하야
減死削職하이시고

元均으로 代任한다
亡在呼吸今日國에
東西黨이 무엇인가
長太息者此也로다
不知分數元均이는
此所謂以國予敵

長平에 趙括이요
即墨에 騎劫이라
士卒이 憤怨하야
鬪志가 全無로다
敵軍에 밧펴 죽고
全軍이 覆沒이라
李白沙 力請하야
李統制 復任하니
白雲間 驚霜雁이
晏然이 飛過하다

閑山島 赴任後에
忠武約束 盡變하고
蓄銳伺隙 저 敵兵이
半夜掩襲 하단 말가
可惜한 李億祺는
赴水而死 하얏고나
碧波亭下 留陣하니
時之政이 秋天이라
月黑雁飛 單于遁이
이 아니 兆朕인가

酗醉만 日事하고
刑罰이 無度하니
醉眼이 朦朧하야
舍舟登岸 欲走라가
敗報가 올나오니
朝野가 震駭로다
落膽을 掛山하고
山影이 倒海로다
軍中에 下令하되
今夜에 敵必來라

各船은戒嚴하야
船板을갈노치며
敵將에馬多時는
水戰에有名하다
鑿棹誓衆逐北하야
馬多侍를擊殺하니
天性이悍鷙하야
與人多忤하난고나
相欣胥悅하난말이
是家果良將이라

술마시고唱歌하야
達夜不寐할지어다
三三五五避乱船을
排列爲疑兵하고
餘敵은遁去하고
無數人指浮海로다
李統制聞至하고
備重儀遠迎하야
尋又獲敵四十級을
悉以與璘爲功하니

東方이微明時에
敵船이蔽海하고
戰艦이當前直衝
三十餘艘擊滅하고
舟師提督陳璘이는
水戰에名將이라
大畋魚大宴犒에
將士無不醉飽로다
提督이大喜過望
自後로誠服하야

每事를 必咨하고
國王께 上書하야
敵軍을 遮擊하야
十餘隻을 全滅하니
是夜에 李統制가
船上에서 祝天하되
祝罷에 領兵先進
敵兵을 擊破하야
石曼子 泗川敵이
統制船을 掩襲한다

經天緯地 補天浴日
極口稱誦하얏고나
平行長이 路窮하야
統鈐으로 納款하고
今日에 李舜臣이
一死를 決할지니
五十隻을 燒滅하고
二百級을 斬獲하니
陳提督이 望見하고
殺人重圍 救出하니

昆陽南海 兩郡界에
露梁津이여기로다
歸路를 哀乞커늘
李統制 却之하고
皇天은 鑒臨하사
此敵을 殲滅하오
平行長이 脫身하야
外洋으로 逃走하고
敵軍이 回棹하야
提督船을 更圍하네

天兵이奮勇하야 噴火筒을散投하니
數百隻蔽海敵船 頃刻間에燒盡하야
烟焰이漲天하고 海波가盡赤이라

李統制陳提督이 表裏合力血戰하여
二百隻을又燒하고 南海까지追擊하야
親犯矢石手自擊鼓 海天이震動한다

敵未滅而將星隕에 流丸中胷하단말가
帳中에扶入하야 左右를도라보야
戰事가方急하니 切勿言我死하라

言訖而命盡하고 敵兵은退走한다
露梁南畔李落山은 山名이不偶로다
落鳳坡가아니런가 長使英雄淚滿襟을

都體察使柳西厓는 再造山河元勳이라
鞠躬盡瘁孔明이오 發縱指示蕭何로다
風雲魚水깃버으나 運命이崎嶇하야

秦檜나 董卓이니 非理詆辱可笑로다
건국하신 神宗皇帝 罔極之恩이즐소냐
天朝의 前後徵發 浙陝湖川雲鬼緬에

南北兵이 二十三萬 諸將官任事人이
三百七十餘員이요 糧銀이 六百萬兩
米豆銀이 三百萬兩 本色糧米數十万斛

諸將賞銀三千餘兩 山東米二十万石
一國을 求하다가 天下가 疲弊하야
闖賊이 一呼하니 七廟가 邱墟로다

興亡은 天數이나 於我之嫌不無하다
戊戌年十二月에 平秀吉이 죽엇고나
德川家康用事하야 平氏를 모라넛다

朝鮮留在諸將들이 不歸順을 念慮하야
先取妻子爲質하고 一齊이 還收하야
清正等 三路兵이 撤兵渡海하엿고나

三千里祖宗疆土
完復舊物깃부도다
扈聖功臣八十六人
李白沙로一等이라
我國人被擄男婦
三千餘口刷還하다
行裝은冲海遠이요
肝胆은許天知라
戊申二月初一日에
宣祖大王昇遐하니

辛丑年夏五月에
中興功臣錄勳하다
爵祿可辭李漢陰은
扈聖祿勳固辭하다
李澤堂贈行하니
其詩에하엿스되
試掉三寸舌하라
何煩六出奇러냐
春秋가五十七歲
在位四十二年이라

宣武功臣十八人에
李忠武로一等이요
甲辰春四溟大師
通信使로往探하야
制敵이無長策하야
雲林에起老師라
歸來報明主하니
依舊一節技로군
王妣는羅州朴氏
朴應順따님이요

二妃는延安金氏 王子는十三이요
金悌男의따님이라 翁主가十人이라

第十六章 (光海君)

王世子即位하니 壬辰年播遷時에 同母兄臨海君은
光海君이이아닌가 分朝撫軍하엿고나 素性이狂悖하고
嫡母弟永昌大君 世亂에立功으로 即祚二年庚戌秋에
出生한지三歲로다 昇遐翌日即位로다 五賢陞廡壯할시고
漢家四百精神血脈 山林發身鄭仁弘은 廟堂上大奸巨猾은
吾王庶幾可望이라 欺世盜名可笑로다 萬年流臭自足하다

晦退가지 誣作하야
儒林得罪무산일고
視同氣如在時는
大行遺敎이아닌가
貞哀大節李漢陰은
飮泣却食하는고나
奴顔婢膝韓孝純은
垂死之年무산취고
誥命冠服盡去하야
西宮으로 廢處하고

李山海李爾瞻은
大北에 魁首니라
天倫骨肉相殘하니
永昌臨海可憐하다
恍惚難測仁穆大妣
婦德은不足하나
戊午十月春正月에
率百官庭請하야
廢朝謁減供奉에
武將四員守直한다

掀天勢力炙手可熱
包藏禍心별일도다
千古綱常鄭桐溪는
大靜縣에 安置하고
亘萬世春秋大義
子撫讎毋이아닌가
大妣十罪歷數하야
告廟頒赦하단말가
廢宮承旨靑反仁은
一首詩를悲吟하니

欲(욕)承(승)無(무)旨(지)可(가)能(능)承(승)
承(승)旨(지)華(화)啣(함)這(신)處(리)證(증)고
忠(츙)不(불)及(급)於(어)鄭(뎡)蘊(온)하고
死(사)未(미)先(션)於(어)德(덕)馨(향)하니
立(입)異(이)者(자)李(이)恒(항)福(복)等(등)
八(팔)奸(간)十(십)邪(사)指(지)目(목)한다
皇(황)明(명)太(태)歲(셰)己(기)未(미)春(츈)에
天(텬)朝(됴)赴(부)援(원)가자서라
觀(관)變(변)向(향)背(배)四(사)字(자)密(밀)旨(지)
弘(홍)立(립)을親(친)授(수)한다

獨(독)坐(좌)黃(황)昏(혼)簾(렴)影(영)黑(흑)에
但(단)看(간)蝙(편)蝠(복)搏(박)流(유)螢(형)을
臣(신)罪(죄)万(만)死(사)無(무)惜(셕)이라
廢(폐)母(모)時(시)百(백)官(관)收(수)議(의)
榮(영)川(쳔)人(일)李(이)苕(쳡)李(이)坪(평)
李(이)爾(이)瞻(쳠)의鷹(응)犬(견)이요
二(이)萬(만)兵(병)調(구)發(발)하야
都(도)元(원)帥(슈)는姜(강)弘(홍)立(립)이
深(심)河(하)를건너서니
富(부)車(차)地(지)가여기로다

李(이)梧(오)里(리)上(상)疏(소)하야
臣(신)以(이)先(션)朝(조)老(로)臣(신)으로
九(구)百(백)三(삼)十(십)餘(여)人(인)이요
宗(종)室(실)一(일)百(백)七(칠)十(십)餘(여)라
安(안)東(동)儒(유)生(생)金(김)是(시)樞(추)等(등)
抗(항)疏(소)被(피)罪(죄)僅(근)免(면)일라
副(부)元(원)帥(슈)金(김)應(응)瑞(셔)요
左(좌)營(영)將(쟝)金(김)應(응)河(하)라
險(험)惡(악)한虜(로)兵(병)形(형)勢(셰)
疾(질)若(약)風(풍)雨(우)衝(츙)突(돌)하다

密旨奉承姜弘立이
全軍降虜例事로다
黽勉隨衆하더라도
常情에無怪하나
狗彘不如兩元帥는
裸身同俗可愧로다
寡衆이不敵하야
矢盡指斷力盡이라
英魂且莫招江上하라
不滅匈奴定不還을

壯할시고金應河는
區區한一偏裨로
尊華攘夷大義理가
胸中에蓄積하니
手下三千孤軍弱卒
强寇를迎戰하야
柳木下에立陣하야
死而不屈하난고나
崇禎皇帝致祭하고
遼東伯을封하고나

主上이密旨이고
二元帥己降하니
密旨는辭命이라
奉承할理万無하고
矢無虛發終日力鬪
殺敵은無數하나
百尺深河萬仞山에
至今沙磧血痕斑을
宮柳青々鸎飛乱에
滿城冠蓋媚春輝라

君子〻逐〻柳希奮等 時事日非可知로다
性智를惑信하야 新大闕을營建하랴
人家數千撤毁하고 八道民丁徵發하야
慶德宮慈壽宮을 不日成之지어내여
民窮財盡한ᄉ연서 賣官贖刑法을내야
金銀木石上納하고 并通仕籍하난구나
山蔘閣老雜菜尙書 時人이機髮이요
金者王者銀耶石耶 市井에童謠로다

第十七章 (仁祖)

河淸海晏癸亥春에 仁祖大王反正한다
元宗大王ᄋ괴신고 宣祖大王第五子요
仁祖大王私親으로 定遠君이이아닌가

王妣는綾州具氏
具思孟의따님이라
金瑬等으로親率하고
慨然이擧義하야
廢主가聞變하고
踰垣而走하얏고나
西宮에親詣하사
王大妣를奉迎하니
天地間逆魁暴揮
不可一日容息이라

王子가四人이요
仁祖壬申追尊이라
十二日夜三鼓에
彰義門을斬入하니
仁政殿에入坐하야
百官을召集하니
王大妃下旨하사
先王虛位命設하고
卿等이深爲宗社
使我出於火焰하니

王室介胄綾陽君이
痛宗社之將亾하야
訓鍊大將李興立이
結陣闕外迎拜하다
兵曹判書權縉等이
顚倒爭先拜賀하다
嗣君을趣入하고
諸臣을下敎하되
可謂社稷臣也로다
承傳色을分付하야

寶를 敬奉하야
嗣君께 傳하여시
江華에 安置하고
永昌大君 臨海君과
嗟君 萬里行 五字를
壁上 粉字 大書하니
李爾瞻 鄭仁弘 等
二十餘人 處斬하고
府院君 李時言 等
八十人 付處로다

是日에 卽位하니
仁祖大王이 아닌가
府院君 金悌男 等
封爵을 追復한다
廢主 是日 濟州 行이
鬼告 其兆 可怪로다
順寧君 景儉之 等
六十餘人 安置로다
朴弘耉 等 削奪이오
閔夢龍 等 追奪이라

廢主는 待以不死
光海君을 降封하야
柳希奮 母 文昌夫人
廢主의 妻母로다
鍾路에 結陣하고
百官이 序立하야
前判書 任就正 等
百餘人 遠竄하고
廢朝에 直言 被罪
趙稷 等 除職하고

金瑬等五十三人
靖社功臣錄勳하다
父子가同死하니
其奴亦死屍傍이라
極諫伸寃忤旨하야
韓逡判官左遷하다
勳臣等이力爭하야
畢竟被誅도얏고나
刑殺이慘酷이라
自其任所斬之하니

廢朝首相朴承宗은
其子畿伯自興이와
一門三綱俱萃로다
旌褒之典不下하고
廢朝吏參柳夢寅은
文章이獨步로다
平安監司朴燁이는
神出鬼沒將才로다
仇人이爭聚하야
剮割屍骸무산일고

衿川山寺先墓下에
天地神祇謝罪하고
一體奴籍하다말가
淸白直言洪無住가
孀婦詞로寓志하니
容有可儀傳生이라
廢主이僚壻로서
西圻伯十年間에
耆德元老李梧里로
領議政을復立하고

大冢宰는 [illegible]이요
大宗伯은 月沙로다
張谿谷 李澤堂은
吏曹佐郞하이시고
都俞吁咈新風雲에
於期爲盛得人이라
大不平이 잇는 中에
虜患을 豫備하야
精兵數萬疾驅하야
京城을 直擣한다

[illegible] 大司諫이요
吳允謙은 憲長이라
鄭桐溪는 獻納이요
金德誠은 司諫이라
平安兵使李适이는
反正時頭功이라
平安兵使내보내서
快快遂有異志하야
文晦等이 告變하야
中外가 震駭로다

鄭愚伏이 副學이요
金沙溪가 掌令이라
張旅軒 金愼獨은
不次擢用承召하니
亂靖后策功時에
新預로 抑爲二等
二年甲子春正月에
龜城府使韓明璉과
都體察使李梧里요
張晩으로 都元帥라

前部大將(전부대장)鄭忠信(정충신)이
先鋒(선봉)은朴永緖(박영서)요
前部先鋒(전부선봉)朴永緖(박영서)는
黃州(황주)에서敗死(패사)하고
臨津江(임진강)을직히다가
望風而潰(망풍이궤)하단말가
興安君(흥안군)李瑅(이시)이는
宣祖(선조)의第十子(제십자)라
劉盆子(유분자)와一般(일반)으로
姑爲推戴(고위추대)하난고나

繼援(계원)은南以興(남이흥)이
軍摠(군총)一千八百(일천팔백)이라
坡州防禦(파주방어)李重老(이중노)와
瓮津縣監(옹진현감)尹廷俊(윤정준)等(등)
公州錦江(공주금강)雙樹山城(쌍수산성)
大駕南巡(대가남순)하신고나
扈駕南行(호가남행)하얏다가
中途(중도)에서逃亡(도망)하며
朝廷(조정)은略成(약성)하야
百官(백관)을備員(비원)하니

八路(팔로)에徵兵(증병)하야
賊兵(적병)을막난고나
猪灘(저탄)에서戰亡(전망)하고
御營使(어영사)李延年(이연년)도
湖西(호서)에父老(부로)드리
簞食壺漿(단식호장)哭迎(곡영)하다
逆适(역괄)에게投降(투항)하니
适(괄)이도心薄(심박)하나
失勢無恥(실세무치)無賴輩(무뢰배)가
陸續投入(육속투입)可笑(가소)로다

都元帥張晩이는 鄭錦南을信聽하야
鞍峴에陣을치고 逆兵을大戰할제
西北大風忽起하야 賊兵이呼吸不通
易次旗動하온지라 南以興이大呼하되
李适이敗하엿다 賊兵이大潰하야
自相蹂躪奔散이라 賊之麾下奇益獻等
逆适明璉을斬首하야 行朝走獻하얏고나
張晩等三十二人 振武功臣錄勳하고
被逮人奇自獻等 四十九人處刑한다
況毅弘量奇自獻은 奇服齋曹㵨이라
崔永慶寃死後에 極力伸雪하야잇고
永昌大君遇害時에 堅執不可하야잇고
廢母論方起時에 立節大倫하얏고나
千古에貞忠大節 有及苗裔할지어늘
勳臣等이設機하야 身且不保可哀로다

仁祖도感悟하사
趙時復官하시엿다
金汧이二王子가
虜騎三萬거나리고
明璉이伏誅後에
胡中에逃入하야
賊報를猝聞하고
上府鳴鼓聚兵할제
宣川府使奇協이는
力盡城陷乃死로다

国運이否塞한가
兵乱이連續하다
姜弘立韓潤等이
鄕導로나왓고나
姜弘立을衝動하여
虎前倀鬼무삼일고
反賊이開門納賊
兵不交鋒城陷이라
郭山郡守朴有建과
定州牧使金搢이는

五年丁卯春正月에
胡乱이나단말가
如鬼如蜮韓潤이는
韓明璉이幼子로다
義州府尹李莞인은
醉眠妓家하엿다가
義州判官崔夢龍과
被執不屈遂殺하고
並家屬被執는降
妻妾被汚奈何오

夫責失節妻罵不忠
鼎底釜底相訾로다
金起宗鄭忠信等
諸將을거나려서
南漢山城직히이고
金沙溪는全羅號召
出降하라재촉한다
金浚이登城大呼
短兵으로相搏하야
兩軍이撕殺한다

賊報가猝至하니
中外가大震이라
賊兵을막게하고
訓鍊大將申景禛을
張旅軒은慶尙號召
徵兵八道勤王한다
我國只知戰與死요
降與和는本無로다
此時에宣傳官이
城中에잇난지라

兵曹判書張晩으로
都元帥를拜하시와
臨津江을把守하고
李曙는摠戎使로
胡兵이乘勝長驅
安州城을進逼하야
賊軍이吹角擊鼓
前仆後入城에올나
南以興이와어블너
奉命하신王人으로

在此同死不可하다
刺臂出血書啓하되
袖手傍觀不救하니
臣等은死而已라
安州兵使南以興과
安州牧使金浚이와
孟山縣監宋德永과
永柔縣令宋圖南과
胡兵燒燬亦多로다
以興之凡以雄이가

孤城이受圍하야
勢將難支時刻이라
哨笛를手操하고
營樓上에올나셔
江界府使李尚安과
价川郡守金尚毅와
北營將韓德文과
虞侯에朴命龍과
朝天路玉河舘에
忽見通衢高揭紅旗

平安監司尹暄이가
一日程에擁兵하야
殊死血戰力盡이라
哨笛를投火하야
甑山縣令張暾이와
泰川縣監金良彦과
博川郡守尹惠等이
人與屋宇騰空이라
南兵使姓名三字
大書特書分明하다

譯人이하난말이
爾國에死事之臣
王世子는撫軍南下
都體察使李元翼과
留都大將金尙容은
都城을직히엿다
滿朝에斥和浮議
辭氣는凜〻하나
金悌甲從子이요
晉州서全城却敵

南某의姓名인대
天朝褒節殊典이라
申翊聖等隨行하고
大駕는江都移御
胡兵이殺奔하야
平山에駐屯하고
안으로는勵勸하야
惟恐和事不成하네
金時敏從弟이라
虜兵이踰城亂殺

以雄아聞知하고
哭臨名下하얏고나
領議政尹昉이와
崔鳴吉等陪從하고
三件條約難從事로
威脅恐喝請和한다
昌城府使金時若은
壬亂에原州殉節
守土之臣死於封疆
老夫의本分이라

誘降不屈乃死하니 乃叔乃兄不愧로다
事勢不得할수업서 江都에築壇하고
春三月庚午日에 兩國이會盟하야
刑白馬殺黑牛에 天神께祭告하고
誓約文을各製하야 兄弟之國結誼한다
和事가完成後에 胡兵이撤歸하고
被擄男女二千餘口 本国으로刷還한다
韓潤을請留하니 胡將이不許하네
姑息之計하엿으나 人心이弗欝하야
朝野에斥和疏章 雪片갓치沓至하고
虜使는每到하야 渝盟한다恐喝한다
尊華攘夷大義理는 三尺童子所知로다
斥和를하더라도 戰守策은해야하제
臥薪嘗膽句踐이는 十年教育하야잇고
齊襄王復九世讎는 春秋에大之로다

何等準備아니하고
입으로만高談峻論
西北風이折木拔屋
富安山에石移로다
都城에池赤하고
二十七處地震이라
鴨綠江을氷渡하야
如入無人之境이라
坐井觀天局見으로
所恃者가江都로다

張虛名이從實禍라
國不爲國엇지할고
關西에鳧戰하고
青坡에蛙戰이라
十四年丙子臘月
胡亂이再起한다
城鎭을不顧하고
京城으로直向한다
右議政李弘胄가
金慶徵을推薦하니

其中에天災時變
層生疊觀무산일고
大邱에鶴陣이오
竹嶺에蟾行이라
金汗이弘他時가
十三萬兵거나리고
朝廷이慌忙하야
莫知所措하난고나
金瑬의아들로서
招神進鬼略解로다

都檢察使拜하시와
江都를직히이고
士族家婦女들이
沒數이ᄯᅡ랏고나
蒼黃이還入하사
事已急矣將奈何오
馬蹄下에즈사옵고
多幸이接話되면
都監大將申景禛을
慕華館에出陣하고

原任大臣尹昉等이
嬪宮大君陪奉하야
大駕는追後하야
崇禮門을막나서니
吏曹判書崔鳴吉이
進前伏奏하난말이
少延晷刻할거시니
乘其間疾馳하사
大駕는도라서셔
水口門을나가시니

前行으로先入하고
宰相家〻屬이며
虜警이已急하야
陽川江을遮絶이라
臣請往見賊將하야
事不如意할지이면
南漢으로速入하야
以觀其變하사이다
城中士女跣足奔走
哭聲이震天이라

乘輿와相雜하야
前之後之頭緖업다
龍骨大馬保大는
胡陣中大將이라
都監大將申景禛은
東城을직키이고
守禦使李時白은
西將台를직키이고
驪州牧使韓必遠과
利川府使曺明勗과

松坡江氷僅渡하야
初更後에到達하니
喘息이未定하야
鐵瓮갓치圍住한다
摠戎使具宏이는
南將台를직키이고
御營大將元斗杓는
北城을직키이고
楊根郡守韓會一과
砥平縣監朴煥이는

旗旄儀仗何處去오
万狀艱關볼수업다
望月台親이을나
戰守策을決斷하야
李曙는御營提調
北門을직키이고
水原府使具仁垕는
南門을직키이고
四城堞을分守하고
坡州牧使奇宗獻은

領兵數百入援이라
前叅議羅萬甲을
都元帥副元帥와
諸島에監司兵使
爾以奴賊稱我하니
我是何人之奴ㅣ며
將以山城捍我乎아
貴所恃者江都ㅣ나
其可揮筆却之乎아
今爾欲其生耶아

管餉使로하이셧다
京外軍이摠合하야
蠟書로下諭하야
星夜赴援재촉한다
我之行事正大하니
誰敢謂我賊乎리오
我將蹂躪八路인즉
以一小島爲國乎아
宜亟出城歸命이요
欲戰亦宜出戰이나

一萬二千餘人이오
扈從文武二百餘라
弘他時前後書辭
目不忍正視로다
貴今多築山城이나
我當由大路인즉
其可魚鼈爲民乎아
斥和論者文臣이라
兩兵이相交하면
上天自有處分이라

忠淸監司鄭世規는
首先覲王壯할시고
一軍이敗沒하야
尼山縣監金弘翼等
今日에殿下之臣
鄭世規一人이라
尹遲이孫子이오
學士尹集兄이로다
賊兵에被執도야
罵賊挺立不屈하니

精銳軍을抄選하야
黔丹山城陣을치니
三將이皆死하고
世規는自墜絶壑
原州營將權正吉은
黔丹山에敗潰하고
娶婦湖西委禽夕에
虜警을急히듯고
賊兵이斷舌하고
亂刃殺之하단말가

山城과相望地라
胡兵이壓擊하야
万死僅生하엿고나
羅萬甲이每奏하되
南陽府使尹棨이는
壬亂에死節之臣
不待朝馳還하야
起兵覲王하라다가
金瑩는首將으로
兵事를모르거든

지대로나이슬게제 無端이自用하야
四城將을強制指揮 督兵出城하엿다가
伏兵이四起하야 二百人將與卒을
瞬息間에盡殺하고 元手杓를歸罪한다
더구나人心沮喪 講和만苦待하네
慶尙道左右兵使 許完이와閔榮等이
四萬兵을收合하야 雙嶺에陣을치네
星月은皎潔하고 金鼓는不鳴이라
越便山老嫗詞聲 더자귀야다자귀야
南山上胡陣先鋒 魚貫而進衝突한다
安東營將宣若海는 獨當其鋒力戰하야
殺賊이無算하고 力盡而死하얏고나
兇劫無用許完이는 不能騎馬발펴ᄒ고
至死不屈閔榮이는 力戰而死하단말가
丙乱에戰亡스多數 雙嶺이第一이라

利川邑越邊大路
招魂하는넉고거라
平安監司洪命耇와
平安兵使柳琳等이
形勢가危急이라
下가勸避하니
從容이遇害하니
凛々猶有生氣로다
見丸矢가無多하니
一箭을[illegible]

四萬餘名忠魂烈魄
依托無地可憐하다
金化에進陣하야
胡兵을擊敗하고
命者가大笑하고
印符는解付小吏
賊兵이乘勝하야
兵使陣에달여온다
旗를보아齊發하라
違令者는斬하리라

夜中有形聲如風颺
斷々鬼가되다말가
數百敵을殲滅하니
餘衆이添兵更進
訣母書를又作하야
侍者에게부쳐노코
柳琳은名將이라
馬上에셔大呼하되
胡兵이迭進輒斃
積屍가齊柵이라

賊中에白馬將이
耀武揚威馳出한다
析兵使自度하되
矢丸이已盡하니
軍中을圍束하야
一邊은移陣하고
賊不敢逼하엿다가
旣明에大至하니
胡兵이雖強이나
飛渡는못하리라

潛擇十卒踰柵하야
一砲로射殺하니
更戰은不能이라
一勝을乘時하야
破銃에藏藥하야
火繩을參差長短
營中이虛無人에
移陣하지已久코다
晏然이肆志하야
日事杯酒하다가

賊兵이敗走하고
哭聲이沸天이라
間道로疾馳하야
南漢으로가리로다
林木에散掛하니
砲聲이終夜不絶
口尚乳臭金慶徵은
自以爲江都金湯
甲串守將急報듯고
於是乎始有懼色

從事官急히달녀
把守之策分付하고
天地가震動하고
無不摧爛하난고나
燕尾亭下力戰하야
賊船數隻擊陷하고
突如流星다라와서
須臾登岸觀望하니
中軍에黃喜身과
千總에姜興業等

甲串津을向하라고
鎭海樓下出陣하니
慶徵이慌㤼하야
策馬還走하라할제
身被數矢하엿난대
留守張紳何心으로
四無埋伏疑慮업다
白旗를一麾하니
鎭海樓下戰死하고
都體察使金慶徵과

越便에잇는賊兵
紅衣大砲亂放하야
忠淸水使姜晉昕은
七隻戰船거나리고
終不相救하다가
輕快한一葉賊船
賊船이爭先咔噪
動山掀海齊進한다
副檢察使李敏求는
三十六計다라낫다

胡兵이 兩〻作隊
掉臂하고 드러오나
廟社主를 둘〻몽쳐
奴僕衣袴 分載하고
南門樓에 急히올나
火藥櫃에 걸안자셔
그孫子 안은체로
烟竹火를 打櫃하야
韓興一 呂角徵은
他國之人 初見하니

領任大臣 尹昉이가
開門迎入 하엿고나
婢子로 跨乘하니
研究性은 멋〻잇다
所着上衣 從者주어
家人에게 歸傳하고
飄蕩騰空 하단말가
成均生員 金益謙과
儀表不可 不整이라
更着新衣 可笑로다

常民服色 換着하고
閭閻家에 逃匿하야
領中樞 金仙源은
世事已去 無奈何라
殘忍한 十歲幼孫
抱膝悲泣 不去한다
氷庫別座 權順長이
相守不去 同死로다
胡兵이 縱火하야
一城이 魚肉이라

淑儀嬪宮大老夫人이
賊陣에다잡히고
宰相家士族婦女
死節者도無數하고
江都가陷沒되니
南漢이엇지할고
危如一髮極盡地頭
計無所出할수업다
金淸陰이痛哭하고
國書를裂破한다

前判書李尙吉과
春坊弼善尹烇이와
失節者도頗多하야
假烈女우수워라
望月峙大將旗가
大砲마자柱折하고
城下之議決斷하야
張谿谷李澤堂과
遲川이曰不得已라
裂之者도不可無요

桂坊翊衛姜渭聘等
忠魂義魄몃々친고
新立한褒烈旌門
存廢間區處업다
城堞女墻盡壞하야
空石으로遮目한다
崔遲川三人等이
國書를製進하니
拾之者도亦宜有라
片々이收拾한다

東陽尉申翊聖은
將劒이 廷叱하고
惟有老臣談笑聽
擬將羣屋號從容을
大駕가 出城하니
哭聲이 滿城이라
戎服으로 下馬하며
壇下에 드러가셔
歲貢物目 常定하니
白金千兩 黃金百兩

金淸陰은 自結하고
鄭桐溪는 割腹이라
虜營에 드러가서
出城節目 議定하야
大霧는 彌天하고
日色도 陰慘하다
北面하고 地坐하야
三拜叩頭 하단말가
白米가 一萬包요
細木이 萬疋이라

砲聲四起 如雷震
衝破孤城 士氣沮을
三田渡에 築壇하고
丁丑正月 三十日에
虜兵數百 擁衛하고
龍骨大가 前導하야
王世子 鳳林大君
瀋陽으로 잡혀가고
明紬白苧 麻布이며
虎皮鹿皮 水獺皮라

三田渡壇所터에 勝戰碑를세웟고나
李白軒文章으로 極筆稱頌可愧하나
孫從臣壽而康은 宋尤菴도迫功하다

武將이驕橫하야 文臣을奴視한다
時平自爲好官하고 臨亂推我塡壑이라
鼠子輩가誤國하니 不斬無以爲國이라

中興이나해논드시 生氣가勃勃하다
慷慨壹鬱時蔡聖龜는 南大門에賦詩하니
綱常墜地國隨傾 公議千秋愧汗靑을

忍負神宗皇帝德가 何顔宣祖大王靈고
寧爲北地王諶死나 不作東窓賊檜生은
野老呑聲行且哭에 穆陵殘日照孤城을

首倡斥和三學士는 瀋廷으로押送한다
平壤庶尹洪翼漢과 吳達濟尹集이라
甑山縣令邊大中은 束縛困辱무산일고

義州府尹林慶業은
死有何恨嗟歎한다
文章은日月이오
義理는霜雪이라
龍骨大清主傳喝
萬端으로威脅하나
万古清名三學士는
歲寒松柏이아닌가
咸昌士人慕以恒等
四人이갓치갓다

清廷에드러가서
清主가問答할제
清主가大怒하야
厥後事는罔聞知라
堂堂大義兩學士가
屈伏할理万無하다
辛巳年春正月에
金清陰도잡펴간다
質可王이出坐하야
次第로訊問後에

紙筆을손에들고
作和事意歷陳하니
吳學士尹學士는
禮部에拘囚되여
西門으로引出하야
收屍도不許한다
都承旨申得淵과
憲府持平曺漢英과
刑部官이하는말이
四人一樣當死로다

申得淵曺漢英은
呼訴求免强括한다
宇宙에벗칠義理
生還故國意外로다
南朝에深恩厚德
一念에이즐소냐
寡夫을寄付하야
裝送海路하엿더니
清將이大怒하야
本國으로責送한다

清陰은自若하야
顏色이不變하니
可憐愁送殆前水가
不恐清陰到瀋陽은
區〻한前後情事
無路陳違恨일너니
宣川府使賊臣李烓이
潜商罪가發覺되여
完城이發行하야
龍灣에馳至하니

胡人이嘖〻相謂
果是堅哥稱歎한다
完城君崔鳴吉이
屈意圖存하엿스나
平安兵使林慶業이
獨步僧을薦報한다
賣國儒生計劃으로
獨步事를細告하니
僉判朴璜來詣하되
諉於林則禍可紓라

慨然答曰不可하다
委人自危義아니라
此身이首相으로
大小事를主張하니
清將이動容하고
死生이關頭地에
金清陰과滿壁同囚
一首詩를寄贈하니
事或隨時別이나
心寧與道違아

鳳凰城드러가니
清將이大陳兵威
慶業은下將이라
命令擧行할而已요
崔閣老事〻自當
可謂鐵石肝腸이라
靜處觀羣動하니
真成爛熳歸라
君能悟此理아
語默이各天機라

嚴重이廷詰하다
完城이應卞하되
旣非主上所知실고
廷僚도一無知라
瀋陽으로枷送하야
北關에牢鎖하고
湯氷이俱是水요
裘褐이莫非衣라
五年을備經苦楚
乙酉에同還할라

秦檜가龍骨小라
清議가喧騰하나
平安兵使林慶業은
義氣잇ᄂᆞᆫ名將이라
中路에逃亡하야
登州로드러가셔
宗藩는夜逃하고
獨立하기不能이라
北海節旄中郞이오
楚囚南冠鍾儀로다

唇焦口燥ᄒᆞᆫ心跡이
天理人情無愧하다
獨步事로責送되여
慨然이拊膺長歎
登州都督黃宗藩와
天下事를議論하다
虜將荊山所執도여
清廷으로드러갓라
清主가義之하야
本國으로檻送하니

非丙子則不可하나
來世口覺말자로다
하날이慶業내야
就死虜廷하단말가
宗藩部將馬登이가
金人에게降服하니
十年不變漢衣冠에
矢死抗節不屈하니
領議政金自點이
私感으로殺害하다

臨死에大呼하되 天下事未定하니
不可殺我할지니라 國人이寃之한다
乙酉年春三月에 世子大君還國하고

六卿質子다나왓다 可憐하다崇禎宮人
賞賜로내여주니 傾城傾國二宮女는
看花不共楚王言에 息夫人이네아닌가

一人은自盡하고 一人은싸라왓다
二十一年癸未間에 天主學이始入하니
西洋國一種邪敎 甚於洪水猛獸로다

遼國이먹난烟草 光海戊午發生이라
南蠻에서왓던길로 南草라名稱하고
恒名은痰破塊니 方言에담배로다

魚肉之氣能解하고 飮食消下最良이라
張谿谷이先嗜하고 淸人도偏嗜하야
燕京으로使行便에 私商이無數하다

南草價가高騰하야 私商者자貪於厚利 天下에普及하야
一束에百金이라 生種으로發賣하야 通用物이도얏고나
己丑五月初八日에 春秋가五十五요 王妣는淸州韓氏
仁祖大王昇遐하니 在位二十七年이라 韓浚謙따님이요
二妣는楊州趙氏 王子는七人이요
趙昌遠따님이라 翁主가一人이라

第十八章 (孝宗)

孝宗大王卽位하니 昭顯世子와伯氏와 淸汗이압헤블너
鳳林大君이아닌가 乙酉春東還할제 各其所願問난고나

淸汗이案上龍硯
天下에寶硯이라
六卿質子被擄諸人
懷土之心一般이라
細細이上奏하니
世子를未安하야
大君을定爲儲嗣
至是하야卽位하시엿다
平城之辱不忘하야
臥薪嘗膽하며엿ᄉᆞ해고

世子는對答하되
龍硯이所願이요
同還하게하여주오
默然良久許諾하다
龍硯으로擲打하며
이게그리所願이냐
左部가稍短하야
短臍聖人이라한다
心中에大經綸은
一首詩를읇허내니

欣然이許諾하고
大君은對答하되
父王을待坐하야
九年間經過始末
因하야病이도여
四月에卒逝하고
天質이英毅하고
文章도夙就로다
我欲長驅十萬兵
秋風雄鎭九連城을

指揮蹴踏天驕子에 音韻가雄健하고 當時名將李浣으로
謌舞歸來白玉京을 氣像이活潑하다 訓鍊大將하이시고
潛邸師傅宋尤庵은 大經營大事業을 尤庵亦是自任하야
不次擢用하오시와 兩人에게一任하니 禮遇가隆重하다
遼東蘇北雪寒風에 不勝寒威可慮로다 이貂裘를못써보면
與子同仇하올時에 貂裘一領下賜하니 虛負國恩아니되나
張虛名而固君寵이 我東方開國初에 百物을賣買할제
不幸近之알수업나 錢幣가업섯고나 布木으로交易하며
太宗朝河崙이가 世祖九年甲申冬에 柳葉箭鐵恰似하다
紙幣를始作하고 箭幣를命鑄하니 八方通貨넉자글을

兩面에分鑄하고
格弊를三張씀에
朝儀가多岐하야
停罷가도엿더니
公私錢路流通도야
民多便之하난고나
西洋人時憲曆法
金堉이購入하야
己亥五月初四日에
孝宗大王昇遐하니

一箇로準用한다
仁祖朝癸酉間에
孝宗六年乙未冬에
金堉이建白하야
水車制度發明하야
八道에頒布하고
觀象監官金尙范이
十年을講究하야
春秋가四十一歲
在位는十年이라

常平廳을命令하야
常平通寶始鑄거니
常平通寶復行하니
米一升에四文이라
璇璣玉衡制造하야
日月度數差違업다
東方이初不推策
至是始行하난고나
王姓은德水張氏
張相의따님이라

王世子獨身이요 公主가七人이라
五月天氣暖熱한데 吏曹判書宋時烈이
禮經을膠守하야 小斂을遷延하고
不絞不掩하엿더니 玉體浮氣大發하며
梓宮이不能容에 附板用之未安하다
慈懿大妃應行服制 禮官이磨鍊할제
乙酉四月昭顯喪에 已爲服斬하엿스니
不意斬이되거시고 四種說體而不正
不害爲庶子이라 朞年으로定制한다
許眉叟尹白湖等은 上疏爭卞하논고나
出系子本生服과 出嫁女親黨服은
貳統之嫌잇는故로 不貳斬을하거니와
第二子亦名長子 禮經에昭載하니
宗統이爲重이라 上承宗廟下臨一國
嫡〻相承大行王을 不得三年四種說노

降之爲朞年制는 於禮에不合하다 與常하야尤甚禮說
於理에不近하고 己亥禮訟이아닌가 閔仲家禮門에는
帝王家禮를쓰고 士庶家禮를쓰니
大行王服制에는 互相倒用可笑로다

第四十九章 (顯宗)

王世子卽位하니 父王이瀋陽時에 二三歲에言行有度
顯宗大王이아닌가 瀋陽邸에誕生하엿고나 天生姿質特達하다
人倫大節嫁娶法은 羅麗以降淫風亂俗 入我國世廟成祖
不更二夫읏듬이라 生妻去室能事로다 再嫁를嚴禁하야

再嫁女子與孫은
淸宦을不許하고
貫本은勿問하고
同姓이면不取한다
李景奭上疏苦諫
回鑾을懇請한다
人臣分義不當如此
臣甚憂焉하노이다
孫從臣을引用하야
極口醜詆하단말가

衰喪嫁娶禁하기로
仁考의成憲이라
溫陽에溫泉藥水
有名한靈泉이라
平昔에朝班上에
納履之色相繼하고
判中樞宋尤庵이
自己指斥이가하며
十六年甲寅二月
張大妃昇遐하니

顯宗에踐祚後에
一層더申嚴하다
眼患이彌留하며
每年擧動하시고나
今日에行在所에
奔問者를未聞하니
待罪疏를即時올녀
三田渡碑文事로
己亥誤禮因襲하야
降一等大功으로

慈懿服을磨鍊하니
禮訟이更起로다
都慎徵七月上疏로
曾以長子之服으로
爲朞年於己亥하고
反以庶婦之服으로
爲大功於今日하니
何其前後有異也오
誠以今日庶嫡服이
無害禮經이라하면
殿下之於大王大妃
便是衆庶孫也일즉
他日에爲大妃地者
將不嫡孫自處엇가
疏入에大怒하사
領議政金壽興을
節節이窮詰하니
汗出沾背罔措하다
初喪時禮曹官員
禮判以下盡拿하야
大擧措를始作할제
不意之變무산일고
甲寅八月十八日에
顯宗大王昇遐하니
蒼梧山저문빗헤
九疑山이그득ᄒᆞ다
春秋가三十四歲
十六年在位로다
王妃는淸風金氏
金佑明다님이라

王世子獨身이요
公主가 三人이라
番番이 服制是非
盛世氣像 아니로다

慈懿服朞年定制
禮訟이 又起한다

슬프다 慈懿大妃
手下逆境 몃번인고

第二十章 (肅宗)

王世子卽位하니
肅宗大王이 아닌가
儀禮之錯誤事實
明白히 措辭하고

卽祚하신 當日부터
勵精圖治하시고나
李殷相金錫胄로
誌文改冊 발게지여

大提學李端夏로
大行行狀改製하야
邦禮를 釐正하니
宗嫡大統 발가졋다

父王이未竟事를
善繼善述壯할시고
宋尤菴門人으로
師門連累아니되나
忍着積德臨中土아
欲挽銀河洗舊都라
穆陵以後東西黨派
亡國하는痼瘼이라
一時에登庸하니
甲寅當局이아닌가

包藏禍心李有愼은
江都投書無狀하고
憲府諫院合啓하야
巨濟安置도얏고나
齊政閣을重修하야
寅賓寅餞하난고나
府院君金佑明이
宋尤菴을제치라고
及其南人見用後는
猜忌之心다시낫다

投進冊子宋尙敏은
負國死黨寒心하다
大報壇을놉피싸니
皇明恩德이즐소냐
自鳴鐘우난소래
終南山이발가온다
南人을進用하야
權大運許積等이
大變이잇을나면
天象도無心찬다

西南隅一小星이
白氣가如練하야
宗室에橫拘아는
吳挺昌의內從이라
金錫胄金萬基等
好機會만낫고나
適其時天雨한다
宦侍를分付하사
韓明澮所不爲로다
決意芟除하셧고나

東北을橫亘하야
屢日不滅하단말가
南九萬疏한장이
導火線이되단말가
白金을벌너헛더
極秘密노調察한다
油遮日을賜送하랴
已盡持去回奏하니
茫然不知許相家는
宴席이方張이라

校書正字許堅이는
許積의庶子이오
陰懷傾陷하엿다가
自己먼저逮鞫한다
其時에許相家에
其祖延諡設宴할제
天顔이不豫하사
御用油幄任意持去
雌雞飛入祠堂하야
床卓俎豆蹴覆하고

宴席으로騰遞하야
東奔西竄顚倒하니
宮門闕門吹角聲에
扈衛宮城무산일고
權大運은荐棘하고
吳挺昌은伏誅하고
士禍以來至悲絶慘
庚申寃獄이아닌가
來殺我하난구야
大呼하고氣絶하네

酉人에게所敗兆라
宴事가尚未終에
七處에設幕하고
百途로羅織하야
柳赫然은賜死하고
李元禎은物故로다
窮奸極惡金錫胄는
重關複壁可笑로다
誣告殺人하는者는
錫胄로前車하소

留門牌招야단낫다
鄭元老上變하야
楨柟堅은處斬하고
許積尹鑴賜死하고
南人大家十三家에
無故連累數千이라
無端이晝坐하야
柳赫然許積이가
覆盆에막힌日月
於焉間十年이라

聖心이 悔悟하사
特旨를 나리시와
金德遠이 右相이오
李觀徵이 禮判이라
金壽恒은 賜死하고
金益勳等 物故로다
李頤命은 遠竄하고
金錫冑는 追削하고
十年血務 李明命을
文錄을 갑핫고나

權大運은 領相이오
睦來善은 左相이라
沈梓는 吏判이오
尹深은 兵判이라
李光漢等 處斬하고
李師命은 伏誅로다
錫冑之子 道淵이는
路邊狂奔 自縊하고
人不可獨殺이라
己巳翻案이 아닌가

大司憲은 閔黯이오
訓練大將 李集이라
庚申에 冤死諸臣
復官贈職 하신고나
李立身 南斗北은
獄中에 瘐死하고
錫冑之妻 任氏女는
官婢屬公 도여셔라
戊辰에 禧嬪張氏
王子를 誕生하야

元子로 定位할제
宋尤庵이 上疏하야
王妃閔氏廢黜하고
禧嬪張氏正位하니
搆殺한 一邊人이
內懷反側하다가
金銀으로 聚黨하고
諺文歌詞지어내야
權大運睦來善은
廢妃時大臣으로

冊封을 防塞하니
上心이 激憤하사
府院君 張炫이가
福昌君家玉帶事件
震龜之子春澤이는
金萬基孫子로다
闕內에 流入하야
上心을 撓動하다
碎首天陛아니하고
袖手傍觀하엿다고

三司長官按律疏에
賜藥後命나렷고나
獄吏密議拒絶하고
直言被殺되얏구나
極凶且巧僞善文에
傾陷手段敏活하다
甲戌年夏四月에
王妃閔氏復位하고
極邊에 安置하고
右議政閔黯이는

廢妃時敎文製進
與其貽禍後世로는
復妃者도 殿下也라
前以臣爲忠하고
丹心이 照白日하니
一死를 付蒼天을
引而發明하엿다가
鍾城圍籬목산일고
贈職贈諡하엿다
英明하신 肅考시로

寧失德於寡躬이라
그 文句로 賜死하고
今以臣不忠하니
爲殿下臣難矣로다
吏曹判書李葛庵은
廢妃時上疏中에
前判書吳斗寅과
前監司李世華와
一翻에 甲寅이요
一覆에 庚申이라

閔相이 撰辭內에
廢妃者도 殿下也요
聖主恩은 如海한데
孤臣이 淚徹泉을
不順壺儀自絶于天
備忘記中 잇는 句語
前應敎朴泰輔는
廢母時三忠이라
一翻에 己巳이요
一覆에 甲戌이라

애들하다 一何翻覆 甲戌幻局이아닌가
惡逆不道罪名여거 禧嬪張氏自盡하니
孤危하신世子宮이 保全하기茫然하다

庚子六月初八日에 肅宗大王昇遐하니
春秋는六十이오 四十七年在位로다
王妃는光山金氏 金萬基의따님이오

二妃는驪興閔氏 閔維重따님이오
三妃는慶州金氏 金柱臣따님이라
王子는三人이오 公主二人早卒이라

第二十章 (景宗)

王世子卽位하니 景宗大王이아닌가
禧嬪張氏賜死後에 母子는天顯이라
母讐를갑흘지면 一邊人이良貝로다

一時爲急除去하야
自爲身謀하여보자
黃水一升吐出하니
그무산毒藥인가
主上이病이깁허
萬機가倦勤이라
形現之症別無하고
再聘今勤數年이라
當朝大臣一請再請
國體草草寒心하다

羽士劍客指揮하고
奴婢進關締結하야
主上이病계셔
則百之慮斷腸이라
丹封한지才一年에
王世弟를代理하야
嗣續有無姑無可論
妨於誕育업지안며
閑散人睦虎龍이
三手上變하얏고나

廢世子爲德讓君을
臨國喪矯草하고
即祚한지未二月에
王世弟를冊封하고
漸入佳境그手段이
一步進於一步로다
寶算不過三十이라
倦勤이무엇인가
挾匕入宮卽席行凶
此를號曰大急手요

締結宮人飮食和毒
此를號曰小急手요
神武門動駕하사
睦虎龍을策勳하고
左議政李健命과
判中樞趙泰采等
前司直金一鏡이
討逆頒敎製進하니
老少論互相殺害
辛壬是非이아닌가

宦侍를連絡하야
流言蜚語扇動하여
被告人等逮捕하야
嚴重正罪하난고나
老論中四大臣을
一時에誅殺하고
懷刃鍾巫曾隱事요
禁廷蹀血唐宗事라
甲辰八月二十五日
景宗大王昇遐하니

放黜을하난거시
此를號曰平地手라
領議政金昌集과
領中樞李頤命과
其外에大小餘黨
或斬或竄다하엿다
用語太欠慘酷하야
自速大禍무산일고
春秋가三十七歲
在位는五年이라

一夜之間掩淚登極 侍藥諸臣摠不知는 王妣는 青松沈氏
趙玉川上疏이요 朴肅東進挽이라 沈浩의 ᄯᆞ님이오
二妣는 咸鏡魚氏
魚有龜ᄯᆞ님이라

第二十二章 (英祖)

王世弟卽位하니 被髮當否下詢하사 金一鏡睦虎龍은
英祖大王이아닌가 斬衰節노擧行하라 一體嚴鞫親鞫하니
一鏡은 終無指告 虎龍은 拱招하되 青天白日갓흘지면
但云自視青天白日 殿下의 心與事가 何敢混入하오리잇가

爲社稷告變외에
他意는 更無하오
金昌集等老四大臣
復官賜祭하이시고
少四大臣이 아닌가
一塲翻覆도얏고나
景宗位牌常設하야
軍皆縞素하난고나
안에서 和應하야
密豐君을 推戴한라

盟壇이 尙在하고
賊血이 未乾하나
趙泰耉 柳鳳輝는
逆律을 追施하고
李麟佐 鄭希亮等
景宗復讐한다 하고
平安兵使李思晟은
關西에서 倡乱하고
李麟佐 權瑞鳳等
詐稱行喪營葬하고

臣實冤痛하오이다
不服徑斃하난고나
李光佐 崔錫恒은
官爵을 追奪하니
安義서 擧兵하야
列邑에 傳檄하고
摠戎使金重器와
禁軍別將南泰徵은
喪車에 兵器실고
淸州城에 潛入하니

清州兵使李鳳祥은 被捉되여斫殺하고 罵不絶口遂死하고
竹林中에숨엇다가 淸州營將南延年은 淸州虞候朴宗元은
麟佐陣에投降한다 朝廷이大震하야 少論으로막는구나
淸州陷報올나오니 少論側에난일이라 兵曹判書吳命恒을
都巡撫使拜하시고 朴文秀가從事로다 南下問罪하난구나
朴纘新이中軍이오 京營兵을거나리고 李汝迪朴東樞는
開城兵馬거나려서 鎭禦大將張鵬翼은 西憂를以防하고
都巡撫後援하고 北漢城下鎭守하야 捕盜大將鄭纘述은
非常蹤跡洞察하고 銅雀津을防守하고 鼓岩을進守하고
京畿監司李廷濟는 東路鎭禦兪拓基는 忠州牧師金在魯는

湖西按撫兼任하야
鳥嶺等處控扼하다
自稱擧義李麟佐가
青龍山上結陣하야
李麟佐權瑞鳳等
官軍圍掩生擒하고
竹川서大戰하야
希亮能輔獲斬이라
當日告變崔奎瑞는
致仕한元老로서

黃海監司金始煥은
洞仙嶺을遮守하고
紅傘을高建하고
白旗로指揮한다
慶尙監司黃璿이는
星州牧使李普爀과
崇禮門臨御하사
獻馘禮를바드시고
加之勳名禮아니라
一絲扶漢四大字를

海西兵使元百揆는
青石嶺을遮守로다
都巡撫使吳命恒이
安城竹山大戰하야
善山府使朴弼健을
檄書로傳令하야
吳命恒等十五人을
奮武功臣錄勳하고
手書下賜其第하고
志確功高四大字는

吳命恒을 書賜한다 清州에 死節諸臣
旌閭贈官賜諡하니 李鳳祥은 忠愍이요
南延年은 忠壯이라 竹林中 李鳳祥이

음속에 덕마닷네 七十一州 全嶺南이
混被黙黙하다가 嶺南縉紳疏下할제
兵曹正郎 金五應이 再爲疏首 하얏고나

孝章世子 十歲時에 父王을 侍坐하야
其時에 閔鎭遠이 李光佐를 請殺하랴
孝章이 勵聲하고 光佐殺 爾父耶아

엇지그리 己甚하냐 未幾예 早卒하고
其後八年 乙卯間에 思悼世子 誕生하니
剛明英特하신 天姿 孝章과 恰似하다

眼光이 射人하야 莫敢仰視하난고나
貪權樂世 小人輩는 뉘의 福이 아니로다
金尙魯 金龜柱와 洪啓禧 諸賊들이

千方百計奇巧手段
父子天倫은어벗다
金洪諸賊손이마자
萬古極變醸出한다
不死必謂空言일새
謹自斃以聞하오
此必有指嗾者라
嚴鞫得情할지어늘
世子를伏於庭下
櫃內로叱入한다

後宮에文昭儀는
恩寵이非常하고
龍安縣監李瀞이가
揷刃於頸上書하되
東宮掖隷羅景彦이
刑曹告變하다가
不下一杖徑斃하니
滅口之策이아닌가
世子가兩手據櫃
仰面哀號하난고나

狡黠한和緩翁主
鄭致達이妻이로다
邸下不得大朝하야
不知禍起何處하니
閭閻一帶常賤으로
제力量은못할지오
洪鳳漢의獻策으로
大櫃를舁入하고
天威가愈震하야
汝死宗社尚保하고

我死宗社亡矣로다
宮僚드리 一時伏前
武士를 號令하사

不得已將跳入하니
擗踊牽挽號哭한다
一齊 逐門外하니

時已夜黑無火하고
小朝 出入門外하사
權正恍이 急前하야

忽聞內庭震盪聲에
軍兵無敢犯手者라
邸下將欲何之잇고

匪久當釋하시리니
小朝가 喟然歎息
還入櫃中하얏고나

莫如承順以待之라
君言이 是矣로다
親下庭加盖하고

宣傳官李頤文을
死不承命하난지라
大釘으로 牢鎖하고

大石加上分付하니
他武士로 代之하고
巨索으로 圍縛하고

生草로 積堆하야
五刑之屬三千가지
十歲된 王世孫이

蒸蘊以死磨鍊하니
이무산 刑罰인고
活我父泣乞한다

捕盜大將具善復을
領百卒防守하니
天日이黯黲하니
此日風流已甚하다
流血被西尹雄이는
廷叱大臣凜凜하다
李醫參奉李光鉉은
洪和輔가斬髮한다
屢被拷掠趙維鎭은
抗言無二壯하시고

櫃榜에서言笑自若
凶腸逆肚可知로다
排闥直入韓光肇은
父子忠節壯하도다
此手可斷林德躋는
據地不起하난고나
赦我當至趙載浩는
何不早入하엿던고
趙重晦는보거니와
李彝章은何由見고

揚揚豪氣一邊人은
漢江船遊宏壯하다
不製敎文韓翼謩는
八牌不進하여잇고
시시掌承額任珹이는
醍醐湯이반가와라
靑裡不平磨不得에
白頭猶自拊龍泉을
攀死不出權正忱은
不與同死恨이되야

丹陽深峽窟室中에 決棍落職李頤文은 明月夜無人時에
不見天日하야잇고 不接時輩北扉하고 孤臥悲泣하난고나
己卯宮官柳觀鉉은 神位禱中金滕書는 相考相考直杖이오
廢跡名途하야잇고 後悔한들何及인가 血衫血衫衰服이라
孰是金藏千秋오 丙申三月初五日에 春秋가八十三歲
予懷堅思之始라 英祖大王昇遐하니 在位五十三年이라
王妃는達城徐氏 二妃는慶州金氏 王子는두世子오
徐宗悌따님이오 金漢耈따님이라 翁主가七人이라

第二十三章 (眞宗)

眞宗大王누구시신고
孝章世子이아닌가
十歲에早卒하고
正宗丙申追尊이라
王妣는豊壤趙氏
趙文命ᄯᆞ님이라

第二十四章 (莊祖) 思悼世子

寃痛하신莊祖皇帝
思悼世子이아닌가
善善惡惡或過하야
韜光斂鍔못하신다
金尙魯洪啓禧가
首鼠를陰扶하야
聰明特達仁孝恭儉
百王에뛰여나다
金洪諸賊文女鄭妻
晝夜謀害무산일고
托以陰虛氣升하고
桂附熱劑連用하야
八域臣民有福하야
十四年代理한다
鬱火症은常患하야
靜攝中에多在한다
氣不降而火益熾에
竟至莫可奈何로다

[illegible]三面喩하여,
代李而當望誰오
怨甚側目視之하니
諸臣無不震惧하고
前是에文昭儀가
有身이十朔이라
生男發布하려한다
長湍大臣李宗城이
一日은武士불너
一劒을버여주며

若이非江充이아
啓禧之子焉敢侍子
鄭遠達은驚사하야
永作狂易하얏고나
生男만하고보면
儲位를可得이라
其時에遣彈하야
卽日還鄕아니하고,
金虎門今日夜에
用意해守直하야

洪述海는嚴作한다
平時未嘗開眼하되
洪之父子大惧하야
下石益急하단말가
千萬落心生女하니
他家子를潛換하야
拳踢交加不顧하고
江郊三月逗遛한다
方物女商들놀지니
連人帶物所破하라

萬一에 疎漏하면
饒餘性命 못하리라
不問曲直 鉤斫하야
諸婆는 卽斃하고
貞聖王后 三祥後에
餘哀가 未盡이라
萬不近理 不道說노
上心을 驚動하야
十四年 代理儲君
이地境에 이를줄가

武士가 分付듯고
金虎門을 직히더니
紅褓덥흔 木函中에
新生一兒 죽엇고나
苴杖衰服 藏置하야
哀到時에 披閱터니
三至十至千百至에
慈母投杼하단말가
逮逮殆上又逮逮에
顯隆園이 어대매요

果然一方物婆가
木函頭戴 드러온다
於是乎 決歸하야
上書告退 還鄕한다
凶服을 預備하야
主上을 呪咀한다
壬午五月 廿一日에
天一無光 엇지할고
月覲門 밧 宮墻
景慕宮이 여기로다

天地間에서린寃恨 百餘年이되얏고나
高宗光武己亥年에 皇帝追尊하시고
皇后는豐山洪氏 洪鳳漢따님이라
皇子는五人이오 公主는三人이라

第二十四章 (正祖)

王世孫이卽位하니 正祖皇帝아닌가
思悼世子子系시로 眞宗後를이엇고나
文章이卓越하사 列聖朝에뛰여나고
崇正學闢異端은 吾道에有光하라
奎章閣을設施하야 列聖文獻奉하고
抄啓文臣揀出하야 作人之化彬彬하다

大典通編制作하나
典章法度燦然하고
文治가極盛하나
末流之弊委靡하다
虛文만崇尙하면
實力이이슬소냐
爾忘越人殺爾父는
吳王夫差는물이라
눈치보고코치보고
他邦罪로懲〻언거

奎章全韻御定하나
文房日用適合하다
文恬武嬉習熟하니
唐室이傾圮하고
百世下尙論者가
流涕太息하리로다
春秋大義復讐討賊
雷厲霜嚴하렷마는
心力을積費하나
法意는未快하다

郁郁文哉吾從周에
禮樂文物大備로다
淸談을主張하니
晉室이亡한고나
至寃極痛壬午事가
十五年이流水갓다
豪奴悍僕掌握中에
不敢開口할수업다
手磔口齧具善復는
逆律노瀦宅하니

梨峴兵門東便으로 景慕宮이그터이라
和緩養子鄭厚謙은 溫室樹說高主로다
挾匕埋凶洪啓禧는 大逆不道에아니냐
文昭儀는賜死하고 掖庭所屬七十餘人
文忠으로改謚하야 禮官보내致祭하고

海之讐也金尚魯는 孥籍之典追施하고
礪山慶源荐棘하야 其後에賜死하고
述海忘海續海等이 自干天誅赤族이라
刑曹에出付하야 一一이正法하고
當日에盡分諸臣 贈職贈謚다하엿다

殃及子孫洪麟漢은 三不必知무산일고
不逞高主洪啓能은 大靜縣에荐棘하고
和緩翁主爵號還收 喬洞에安置하고
長瑞大臣李宗城은 爲國貞忠追念하사
天道는福善禍淫 無往不復이아닌가

復讐雪寃ᄒᆞᆯ자는 우리嶺南大義理라
多士의 衆論으로 李魁庵이 疏首로다
政院書吏奉疏하고 疏首以下肅拜後하야
疏首를 親이 불너 讀疏하라 分付하니
十行溫批 나리신後 다시 分付惻怛하와

三溪書院發文으로 萬人疏가 이러낫다
搢紳章甫行列지어 敦化門外伏閤하니
熙政堂三等土階 咫尺天顔 반가와라
疏首가 進前跪伏 一篇을 朗讀한다
嶺南에 安東府는 士大夫根本地라

壬子年四月日에 發行道會開席하고
거룩할사 우리殿下 儒疏奉入分付하니
姓名을 부르신後 蓮燭은 如白晝라
玉色이 悽惋하사 手目擊崇하시면서
爾等이 遠去하야 安東에 歲致하고

四〻이講明하라
玉音이溫〻하라
顯隆園百里長程
省墓擧動자ᄌᆞ시셧다
水原府ᄃᆞᆯ어보니
南北門樓雄壯하다
大皇橋널다리에
落〻長松버럿고나
四十里周回안에
松虫이大起하야

大哉라王言이여
뉘아니感激하랴
銅雀津얼는건너
伐沙斤川여기로다
顯隆園所在地라
昊天罔極孝心으로
龍珠寺건너편에
廬山弓劍여기로다
諸山이도얏고나
天威가大震하사

寒心하다安龍等이
沮戲하기무삼일고
遲〻臺達하올나
皇華亭駐蹕하고
華城留守蔡濟恭을
特別申飭營纛이라
擗擗悲號하신後에
左右山을奉審하니
宣傳官을急히불너
松虫을拿入하라

宣傳官이聽令하고 數個를進獻하니
天顔이不懌하사 嚴重이數罪하고
唐太宗吞蝗하듯 趑趄업시삼키시다

卽地에雷霆霹靂 風雨가大作하야
無數한松虫이가 追風逐雨업서지다
天神이感動인가 王靈이壯하시고

還宮을하신後에 親臨科를보이실제
太阿가如秋水라 科題를내엿고나
此日夜酒物床에 水松餡을進御하고

不久에昇遐하니 庚申六月廿八日라
穹壤에서린寃恨 含忍하고보시다가
事未發而機先動에 促禍만하단말가

高宗光武己亥春에 皇帝追尊하셧고나
春秋는四十九요 在位二十五年이라
皇后는淸風金氏 金時默따님이라

王子는二人이요
翁主가一人이라

第二十六章 (純祖)

王世子即位하니
純祖皇帝이아닌가
我東에陸續諸賢
姓名別號詳知하고
文王이禮陟後에
遺志를善繼하야

聰睿가天成하야
五六歲되실적에
開國以後相臣錄을
如誦己言다외운다
斥邪扶正더욱壯타
清國人周文謨가

在廷諸臣姓名世系
纖悉無得歷擧하고
大學章句悉通하야
句讀가明晳하다
使行을隨來하야
天主教를密布하며

誘惑男女하단말가 軍門梟示警衆하고
本國人沉惑者는 大行鋤治誅殺하니
李家煥丁若鍾等 그才藝可惜하다

命世之才丁茶山은 經濟家集成이라
天文地理醫藥卜筮 生而知之하여잇고
輪船汽車各種電機 無不通知天才로다

欽欽新書牧民心書 政治法律燦然하다
人材養成한양이면 特別히大用하야
全國後進敎育하야 富國强兵一等国이

天下萬國號令하야 先覺者가될지어늘
異常한我國規模 稀世之才낫다하면
一時爲急除去하야 五百年成法이라

不幸하다丁茶山이 偏少東邦出生하야
知猷滿腹好經綸을 一番施行못해보고
何凡이邪學連累 一生沉屈寃痛하다

書案을 한번치고
玉皇前에 等狀가자
山高水清辛未冬에
定州嘉山乱이 낫네
永興府黑石里는
我太祖龍興地라
壓制로만 主張하야
差別待遇已甚하다
成均校書分官出六
通禮録事清宦이오

人才를 鍾出하고
分額너모 抑鬱하오
魁首는 洪景來요
無君則이 謀士로다
그地方 世居시로
桀驁難制習知로다
西北道士人이면
常賤으로 取扱하야
南初試李初試가
焜赫한 宅號로다

千秋에 志士눈물
옷기슭 젹시고나
咸鏡平安西北道는
人心風俗傑驁하다
因其性而善導하면
緩急可用할지언늘
科擧를 어더해도
發身前途永이업고
五臟잇는 男子이면
脾胃難定할지로다

四百年寃憤之氣 人皆有之充膓이라
洪景來一臂呼에 風雨갓치 몰녀든다
風聲鶴唳 百姓들은 精神업시 相呼相喚

너도가자 나도가자 避亂가자 逃亡가자
東西南北 定向업시 山으로만 드러간다
漫山遍野 우난소래 目不忍見 아닌가

工巧이 是日夜에 大雪이 나리엿다
入山者는 다죽엇고 在家者는 사랏구나
鄭堪錄에 잇는 秘記 渺茫하게 마잣단말가

殺我者誰 雨下橫山 雪字가 分明하고
活我者誰 豕着冠에 家字가 아닌가
宣川府使 金益淳은 開門降賊 무삼일고

그孫子 金笠이가 錦繡文章 쓸곳업다
宣川 龍川 郭山 鐵山 五城을 陷沒하고
賊兵이 長驅하야 嘉山을 進逼하니

壯할시고 郡守鄭蓍 燭下에 環坐하야 吏校奴令 逃走하고
그 父親 李氏와 巡兵營報狀草를 慌忙이 親書할제
賊兵이 突出하야 印符를 손에잡고 賊兵이 揮劍하야
降服하라 威脅한다 挺立不屈 大罵하니 印符가 진 손을 친다
左手로 또 잡으니 兩足으로 발고서니 衝天貫日 忠憤으로
左手를 마자치네 兩脚을 또 찍고나 手足업다 노흘소냐
땅으로 업더지며 無道한 賊劍下에 古今에 守土之臣
以口含之하얏고나 首領까지 떠러졋다 一死報國만 컷만은
烈烈한 鄭郡守는 其父를 捽曳하야 其弟가 翼蔽하야
千古에 所稀로다 亂刃刺之하란 말가 以身代命 哀乞한다

父子를 並害하고
賊兵은 退去로다
萬古綱常 三父子요
五城風雨 一男兒라
關西慰撫 鄭晩錫은
軍務를 參聞하고
賊兵을 進擊하야
郭山宣川 收復하고
郭山以北 始通이라
璽書를나리시와

守廳하든 妓生蓮月
收屍하러 나가보니
平安監司 狀啓보고
討賊之策 下詢하사
巡撫中軍 朴基豐은
領軍四哨 出征하다
義兵將 金見臣과
領軍將 許沆이는
宣傳官 金見臣은
關西守令 除授하고

其父는 已死하고
其子는 復甦로다
兩西巡撫 李堯憲은
京城에 開府하고
咸從府使 尹郁烈과
郭山郡守 李永植等
首先擧義 募兵하야
龍川鐵山 回復하니
羽林將 許沆이는
挺身突入 賊陣하야

左衝右突所向披靡 手劒斬賊無数하고
竟被鎗死하단말가 統制使를命贈하고
其妻金氏矢心下從 旌閭까지나리셧다
巡撫中軍朴基豊은 鏖戰不利功이업서
削職을하이시고 柳孝源을代任하니
諸將을指授方略 定州城을進圍하야
地道로火藥묵더 城堞을盡崩하니
守堞賊은壓死하고 餘衆이大亂이라
洪景來는中丸自斃 西亂이悉平이라
官軍이凱還하나 平賊陳賀하난고나
鄭嘉山은兵判贈職 忠烈諡號나리시고
其父魯는亞卿加贈 綽楔之典旌施하고
兵家는服闋後에 特爲調用傳敎샷다
李堯憲은超授二品 柳孝源은加資하고
出征諸將守城諸倅 表裡奇勳有差로다

頻赴戰林之煥은
林忠愍後孫이라
爲賊所獲不屈하고
謂當上見天日이라
臨死仰臥不伏한다
贈官旌閭하시엿다

戰亡壯士紀蹟碑를
定州城外竪立하고
每歲에破城日노
忠魂烈魄設祭한다
甲午至月十三日에
純祖大王昇遐하니

春秋는四十五요
在位三十五年이라
高宗光武己亥春에
皇帝追尊하셧고나
皇后는安東金氏
金祖淳따님이라

王子二人早卒하고
公主가三人이라

第二十七章 (文祖)

文祖皇帝는 기신고
孝明世子이 아닌가
以世子記銘지어
皇意를 報答한다
庚寅五月早卒하니
春秋가 二十二라
[illegible]宮아지 不安하야
章敬王匣하엿고나
皇后는 豊壤趙氏
趙萬永따님이라

純祖의 元子시로
四年을 代理하고
濟王鎭方磨以印之
其父誰何日惟謹獨
殯宮에 失火하야
總護使鄭晩錫이
憲宗甲午追尊하야
廟號를 翼宗이요
一男을 두셧스니
王世孫이 아닌가

愼獨二字刻石하야
王世子를 下賜하니
聖意眷眷意出言表
臣拜作銘終身佩服
移安所를 禀請할제
如斯際益職하야
高宗光武己亥春에
皇帝追尊하엿스다

第二十八章 (憲宗)

王世孫이即位하니
憲宗大王이아닌가
時年이八歲시라
純元大妃垂簾한다
景慕宮內望廟樓는
火災가무산일고

冤辭하신思悼世子
示警을하셧던가
天主學을申禁하야
宣敎師西洋國人
羅伯多祿范世亨等
三人을處斬하고

民間疾苦博詢하야
各道還穀十万石과
清風通米四千餘石
特旨蠲減하셧구나
己酉六月初六日에
憲宗大王昇遐하니

春秋는二十三歲
十五年在位로다
王妣는安東金氏
金祖根의따님이오
二妣는南陽洪氏
洪在龍의따님이라

第三十九章 (哲宗)

德完君이 入承하니 俗所謂 江華道令 全溪君 第三子요

哲宗大王이 아닌가 哲宗時 난 말이라 純元大妃 命을 바다

憲宗繼統 아니하고 純祖王妃 純元大妃 三不必知 洪獜漢은

純祖後로 直接하니 自己執權 欲望인가 壬午諸賊 巨魁로다

思悼世子 曾孫으로 如恐不及 復官爵은 沿海諸郡 各浦口에

當日事를 이젓던가 王政이 애들하다 無名雜稅 革罷하고

各關市 商業界에 京外雜技 嚴禁하니 癸未臘月 初八日에

都酤弊를 막앗고나 浮浪者가 업서진라 哲宗大王 昇遐하니

春秋는三十三歲
十五年在位로다
一公主錦陵尉는
甲申四凶朴泳孝라

王妃는安東金氏
金汶根다님이라

五男六女並早卒에
鮮顱症이너무심다

第三十章 (高宗)

高宗皇帝入承하니
興宣君第二子라
景福宮을重建하니
制度가雄壯하다

趙大妃命을밧아
翼宗後를이엇고나
土木업시經費巨役
國用蕩竭할수업다

純元大妃己例린가
垂簾聽政조흘시고
民間에富戶抄해
願納錢을徵出하니

洪公啓薰方伯守令
好機會를만났고나
卽位一年復宮하니
歸拜先王何心인가
本道에押送하야
查究登聞하라하고
佛國人李德兒가
清國으로逃走하야
七隻艦隊繼還하야
江華를進薄하니

사모棲杖길목갈에
闇黑氣像慘憺하다
東學魁首崔福述은
慶州에서聚黨하야
斥邪綸音頒布하야
大行搜捕하시고나
佛蘭西水師提督
魯考에게訴哀하니
江華留守李寅夔와
通津府使李公濂이

金玉逆魁金生老는
不共戴天이아닌가
永世不忘呪文일께
惑世誣民하단말가
外國人宣敎師를
十餘名處斬하니
砲艦二隻即還하야
漢江深淺測量하고
棄城逃走무삼일고
前判書李是遠은

飮藥自死하단말가
丙寅洋亂이아닌가
佛軍艦陷江都하야
本營에入據하고
鼎足山城屯駐하야
佛軍을逆擊하니
土木之役繁興後로
經費維持茫然하다
斯文運氣否塞하야
書院毁撤무삼일고

李景夏는巡撫使로
京城에開府하고
遊兵을日出하야
地方情形審査하다
賊兵이大敗하야
焚城揚帆逃走하다
臨時救急政策으로
當百錢을지어내니
弊瘼은不無하나
玉石俱焚可歎이라

巡撫中軍李元熙는
領兵屯集하난고나
巡撫千摠梁憲洙가
精砲五千거나리고
官軍이凱還하야
論功行賞다하엿다
行用찬지未幾日에
物價翔貴良貝로다
慶尚道寧海府는
民亂이나단말가

諸府使李儆은
亂民에 죽엇고나
德津을 來侵한다
鎭撫中軍 魚在淵이
砲丸이 如雨하니
我軍이 大亂이라
在淵을 褒忠하야
兵判贈職하엿고나
世子冊封奏請하니
其時에 從宮所生

守土之臣職分이라
正卿職을 褒贈한다
廣城津에 大破하고
二隻을 擊破하니
魚中軍이 挺身奮勇
數十人을 斬殺하고
王妃는 驪興閔氏
閔致祿 따님이라
完和君이 잇난지라
廢長立幼不許한다

美國水師魚鎬壽가
軍艦隊 거나리고
美軍이 潛師下陸
我陣後를 衝突하야
亂軍中에 죽단말가
魚在壽도 遭害한다
甲戌年春二月에
元子誕生하셧고나
奏請使李裕元을
閔中殿이 親히 얼너

今行에 不成하면
生塗炭 免못하리라
所請依施 四字契約
保衛宝城 給하고
契約履行 內容으로
通商條約 締結하야
仁川元山 各海口에
次第로 開港하니
一駿二達 조흔羽翼
牝鷄司晨 하난고나

裕元이 大悞하야
百姓으로 周旋할제
因以得成 하얏고나
閔中殿이 大喜하야
泥峴屛門 一帶地를
居留地로 許給하고
三千里內 商業權이
盡屬他手 하단말가
舅婦間에 對壘하야
勢不兩立 엇지하나

日本大使 花房義質
貴國에 駐在하다
花房義質 還國時에
大內로 引見하고
釜山은 出入口라
己卯年에 開港하고
雲峴宮門 軺軒平轎
國太公 勢力이요
聰俊子弟 選拔하야
士官生徒 養成하고

別技軍을編制하야
下都監에新設하고
敎師로雇聘하야

武衛壯禦二營門을
日本人堀本禮造
兵制技藝訓練한다

各軍門을革罷하니
前已屢朔失餉하야
至是에訓局兵士

廢免된舊式兵士
衆情이不平하다
一月俸을頒給할제

統轄한倉吏들은
倉米를竊食하고
舊兵等不勝血氣

閔謙鎬私人이라
以沙和米하얏고나
當場打殺倉吏로다

閔謙鎬大怒하야
將待朝處刑한다
營門에闌入하야

首犯數名捕促하야
亂兵이一呼百應
武器를各持하고

風雨갓치이르나니
三隊로分路하야
閔謙鎬金輔鉉과

寧乎軍變이아닌가
一隊는바로나와
權威勳門諸閔家를

蹂躪漫作平地하고
依藉勢威恣行者와
罪囚를放出하고
向山으로分往하야
一隊는바로나서
下都監을直往하야
濟物浦로出逹하다
平時에亂兵等이
領議政李最應은
自傷致死하다

附麗權門貪猾者를
不論貴賤打破하다
各寺刹을燒燬하니
供佛求福不遑他에
堀本禮造刺殺하고
日公館을進圍하니
敦化門을斬關하고
寢殿에突入하야
亂軍이咆哮罵詈
無餘欲上之犯이라

一隊는바로나서
王獄을擅開하야
軍兵은不恤이라
그雪憤을하여보자
日公使花房義質
自焚館舍冒刃突出
閔謙鎬金輔鉉等
御前에서刺殺하고
大院君이馳入하야
一號令에鎭壓하다

機密面議 잇사오니
敢請一枉 하나이다
世上事를 難測이라
輕遽이 못할지니
營門을 一入後에
一去不還 杳然하다
鴨綠江을 건너너니
故國山川 머러진다
雲峴宮門 深閉하고
書畵로 消日한다

大院君이 傳喝듯고
재비오라 分付하니
代行으로 往復하야
事機를 보아하오
千乘之君 國太公을
如呼小兒 불너다가
保晴府 三年滯囚
楚懷王의 武關인가
甲申年冬 十月에
革命黨이 이러난다

前參判 鄭顯德이
極言不可 挽留한다
雲峴이 不聽하고
宣仁門 밧바로 간다
魚腹浦에 바렷던가
혹자비에 홀인다시
乙酉春에 東還하니
謙得英雄 盡白頭다
金玉均 朴泳孝와
徐光範 徐載弼等

外兵을 鍊習하야
入宮作亂하난 말가
懷中洋紙 探出하야
日使來衛 빗ᄉᆞᆯ사 굴
左營使 李祖淵과
後營使 尹泰駿과
上命으로 召入하야
門內에서 屠戮한다
戶曹參判 玉均이요
左右營使 光範이라

淸兵이 作亂하야
火光이 滿城이라
저 鉛筆노 죄가 써서
印信表章 證據업시
前營使 韓圭稷을
入直堂에 殺害하고
威福이 下移하야
自相除官하난고나
前營正領 徐載弼이
財政兵權 掌握이라

請意移御 立促하야
恐喝威脅 無餘地라
上命이라 直稱하고
日公舘에 飛傳한다
海防總管 閔泳穆과
閔台鎬 趙寧夏를
右議政은 洪英植이
前後營使 朴泳孝라
擡頭揚臂 無忌彈에
廢立之說 내단 말가

鐵桶갓흔宮門把守
內外消息頻絶이라
假死하고넘어드러
大駕를扈衛하야
淸國將令吳兆有와
袁世凱張總兵이
我兵이躍入하야
洪英植朴泳教를
金玉均等四逆黨은
木櫃中에藏身하야

滿城이洶洶하야
主上安危모란고나
北漢으로移御하니
逆黨이阻搪한다
各領兵來赴하야
大駕를마자내니
一劍斬爲肉泥하고
逆徒七人並殺하고
日本商船千歲丸에
海外로逃走한다

玉流泉後墻門에
武藝衛士別抄軍이
在外한百僚庶民
駐防營에告急하야
逆徒가牽執街에
拒死不釋하난고나
虎口를得脫하야
大駕還御하난고나
英米法德露西亞와
交好通商締結한다

國家에病들나면
財政부터先病이라
國用絀力아니되고
物價만高騰하다
求福을未形事요
屢千萬圓經費로다
漢江에無數魚龍
오늘찰쓰고밥잘먹네
逐鬼하는大砲소래
仁王山이무어진다

當百錢이革罷後에
當五錢을新鑄하야
柳葉錢鵝眼錢이
其益不遠이아닌가
巫覡淫祀讀經
虛日이업쓸말가
平壤妓生風流속에
蓮鶴이如畫로다
蓬萊雲關肅靖地에
雜鬼侵犯하쓸말가

풀넘기호當五一分
葉錢五分通行하니
山개新禱壇鈔하고
願堂爲祝供佛하니
錢을허러祈福하고
白米헛허解殺하니
一夜에遊蕩債가
金銀은綵緞넘가련고
洪川嬌々振靈君은
關雲長이들여라고

吉凶禍福能知하야
奉若神明하난고나
國用이薄竭하니
賣官賣爵生財로다
貪官汚吏罪를마라
商業으로하난仕宦
배솜가려貴名帖에
參奉監役덤허진다
惠堂上閔泳駿은
害國病民너모마라

守宰牧伯一等仕宦
多出其手可笑로다
進士及第守令方伯
定價金이잇난구나
基金損害안본나니
虐民之外道理업다
無罪良民生活難에
駭懼思亂하난고나
刑餘一物姜錫祜는
魏璫聖人이네아닌가

嗜利無恥士大夫가
曰弟曰子結誼한다
千乘之君挾幇中에
於音出納무샹업고
兩班富者存問하고
常賤饒戶査問事라
沙鉢通文삽작붓들
官長을辱逐한다
嚴尚宮에배가마자
炙手可熱勢力이라

官爵賣買口文먹고
守令方伯賂物바다
崔福述이죽은後에
餘黨이尙存하야
墨守猾吏發皮革가
濫以成之하엿고나
古阜郡守趙秉甲은
昌其亂者도야잇고
遠近이響應하야
數十百萬徒衆이라

[illegible]
[illegible] 山이라
所謂法憲先生
崔濟愚가이아닌가
轉運使趙弼永은
始其亂者이아니며
按覈使李容泰는
促其亂者도야잇다
處々에設接하야
道人이라自稱하고

甲午年春三月에
東學亂이나단말가
三南이甚한中에
全羅道가尤甚하다
均田使金昌錫은
釀其亂者이아닌가
古阜鄕民全琫準이
乘時嘯聚作亂하다
閭里를侵掠하야
殺氣가騰々하다

泰安府使(태안부사) 申百熙(신백희)와
瑞山郡守(서산군수) 朴錠基(박정기)와
靈光郡守(령광군수) 閔泳壽(민영수)는
載糧浮海(재량부해) 避難(피난)하네
招討使(초토사) 洪啓薰(홍계훈)은
古阜向面(고부향면) 나려가고
日本兵(일본병)을 合力(합력)하야
各處(각처)를 收復(수복)하고
洪鍾宇(홍종우) 三尺匕首(삼척비수)
一[illegible]도야쉬라

忠淸領官(충청령관) 廉道希(렴도희) 等(등)
次第(차제)로 殺害(살해)하고
風聲鶴唳(풍셩학려) 놀난 百姓(백셩)
八公山(팔공산) 草木(초목)이라
巡撫使(순무사) 申正熙(신정희)는
諸將(제장)을 指揮(지휘)한다
全羅監司(전라감사) 李道宰(리도재)가
全琫準(전봉준)를 生擒(생금)한다
故國山川(고국산천) 楊花津(양화진)에
[illegible]하얏구나

全羅監司(전라감사) 金文鉉(김문현)은
箕城(기셩) 逃走(도주)하단말가
朝廷(조뎡)이 大震(대진)하야
命將出師(명장출사)하난구나
右先鋒(우선봉)은 李斗璜(이두황)이
左先鋒(좌선봉)은 李圭泰(리규태)라
甲申亡命(갑신망명) 金玉均(김옥균)은
海外(해외)에 出沒(출몰)하야
春秋戰國(춘추전국) 읏대런가
日淸戰爭(일청전쟁) 大起(대기)로다

淸國大臣李鴻章이 日本總理伊藤博文 四個條約成立하니
公衆은和하낫고나 春帆樓에會同하야 馬關條約이아닌가
朝鮮國獨立權認 丙子年下城文書 三田渡淸汗碑를
第一條가되얏고나 一一이回收하고 痕跡업시拔棄로다
隣邦厚誼感謝하나 實力養成아니하고 尊號는大君主요
獨立實力이업던가 形式만崇尙한다 元年은建陽이라
官制改正一新하야 吏判兵判六曹判書 參判은協判이오
議政이總理되고 十部大臣이아닌가 捕將은警務使라
承政院六承旨는 弘文館校理修撰 都事監察廢止하고
秘書丞이되야잇고 侍讀이라改稱하다 主事參奉初仕로다

五營門訓鍊大將
三道水軍統制使며
軍兵을 統率하고
八道에 山川戶口
府使牧使縣令縣監
郡守라 通稱한다
道袍氅옷 다 바리고
士庶常服黑周衣라
嫡庶俱無子女後에
養子를 始行하고

兵使水使防禦使와
僉使中軍營將虞候
十三道로 分畫하야
資憲嘉善通政堂司
衣制를 變更하야
金冠朝服紗帽角帶
遊學生을 보내나니
外國文明輸入하고
年少女子改嫁하야
貴賤업시 自由로다

一齊히 革罷하고
副領參領中隊小隊
大小階級不拘하고
觀察使라 改稱하고
官人禮服卷改하야
窄袖團領草率하고
班常名分打破하야
人材로만 用人한다
公私奴婢革罷하야
人口賣買嚴禁하고

驛人倡優皮匠等屬
普通으로免賤한다
三千里國千秋母后
萬古極變이아닌가
千斬萬戮鄭秉夏는
王后出避防阻하야
孔德里深[illegible]別邸
刺客酬酌무산일고
自伐而後人伐이라
誰怨誰咎할것잇나

乙未八月二十日에
明成王后어데가고
宮內大臣李耕植은
御前에서刺殺하고
甘言利說力奏하야
伺察動靜무산일고
保晴府報復인가
權利戰爭녀모마요
外部大臣金允植은
白首之年不死하고

鹿園樹林煙起處에
九級山이어대매요
王太子亦被拘臾
鐵脆其冠하란말가
廣島裁審決定書는
目不忍見하리로다
二十年朝鮮禍根
暴虐金底이아닌가
趙羲淵이指使도여
그照會가무산해고

奴顔婢膝內閣諸臣
持鎌逃匿하지 마오
地方으로 周行하야
至誠으로 宣布하다
聲大義於万國하니
成敗로 論人마라
往路上來人去客
逢輒削之하란 말가
光武로 改元하고
國號를 大韓이라

無賴輩朴銑이가
그게 참 首犯인가
八路에 忠義之士
奮不顧身이러나라
四千年膠固舊習
削髮令이 무삼일고
仙李春光丁酉春에
三層皇壇놉히 쌋고
東方偏小恨을 마라
出警入蹕조홀시고

前校理李容鎬는
衣帶密詔 받자와서
湖西에 柳麟錫과
關東에 李康秊등
勇猛잇는 巡檢巡捕
削髮器械 손에 들고
周雖舊邦命惟新에
皇帝位에 나아갓다
畵皮毛效嚬笑에
偶人形이 可憐도다

其時總理實用이는
永世不忘할지로다
景福宮을떠나가고
總督府가되단말가
五百年盛衰興亡
一場春夢虛事로다

芒鞋竹杖路千里에
八道山川求景가자
黃海道九月山은
檀君聖人나려셧다
唐堯戊辰並立하니
東方始祖이아닌가

万國玉帛塗山會에
扶婁王이가셧고나
書契가蒼頡하야
年代國都不可攷라
平安道平壤府는
箕子의故都로다

殷나라이亡한後에
麥穗歌를슬피짓고
五千殷人거나리고
避周東來하셧고나
八條仁化施하시고
井田遺跡宛然하다

西都佳麗似杭州는
申石北樂府도다
大同江말근물이
綾羅島를둘너잇고
牡丹峯고은物色
乙密臺가여기로다

東上에 箕子陵은
廬山中境이 아닌가
燕國人 衛滿이가
箕準을 誘逐하고
箕準은 南下하야
金馬郡에 建國하니
弁辰馬 三韓國이
鼎足갓치 並峙로다
天下莫强 高句麗는
朱蒙의 國號로다

統合平壤 一江山
朱之蒙이 흘씨로다
自立爲王 하단말가
九月山 [illegible]殿에
國號를 馬韓이라
益山郡이 其地로다
多事한 漢武帝는
分爲四郡 무산인고
隋煬帝 百萬大兵
乙支文德 道術로서

四十三世 相傳業이
箕準에게 뎐힛고나
將兵萬人 往赴하니
勇略이 壯할시고
東北은 辰韓이요
西北은 弁韓이라
樂浪玄菟 臨屯眞番
沿革分合 無常하다
淸川江에 陷沒하고
唐太宗 兵威로도

蓋蘇文 날넌 활살
一目을 傷햇구나
東流는 豆滿이오
西流는 鴨綠이라
大可毒英雄之氣
虎視唐朝하얏고나
豆滿江邊 發祥地는
野人의 部落이라
湖西形勝 扶餘郡은
百濟溫祚 故都로다

遼河以東 넓은 地方
高句麗 疆土로다
北流하는 一派水가
黑龍江이 아닌가
仙出嶺 定界時에
高句渤海 二種界를
邊患을 積苦하야
其地를 責虛하니
白馬江上 落石事跡
蘇定方의 釣龍臺라

白頭山 大澤水가
三叉江이 도얏서라
其沿岸 一帶地界
渤海國이 여기로다
無端이 拋棄하니
不可使聞隣國이라
廣西郡이 아닌가
規模도 泥塞하라
妃嬪宮女 여러가지
落花岩이 슬프도다

江原道江陵春川
濊國貊國이며기로다
慶尙道金海郡은
駕洛國이여기로다
石舟浮海나온神女
首露王妃이아닌가
三韓을統一하니
金角干功이로다
金銀木石各種美術
天下에一等이라

鐵原泰封으로도라드니
弓裔故都이아닌가
六個金卵이下降하야
六伽倻도야시라
許后陵前止風石이
古蹟이蒼然하다
朴昔金三姓相傳
四十八王綿遠하다
瞻星臺半月城은
往跡이蒼茫하고

憲安王庶子로서
泰封國을여럿구나
金天氏後裔런가
一名은金官國이라
龍飛鳳舞慶州山川
新羅千年古都이라
三奇八怪稀見珍奇
天下에壯觀이오
鮑石亭流觴曲水
不知門外韓擒虎라

有德(유덕)하신 敬順王(경순왕)은
禪位(선위) 麗祖(려조)하시고나
壯(장)할시고 中世(즁셰) 甄萱(견훤)은
紀信(긔신) 將軍(쟝군)이 아닌가
四百年(사백년) 王氏(왕씨) 尙佛(상불)
地靈(지령)으로 그러한가
無端(무단)이 自起自滅(자거자멸)
吳楚(오초) 鹽鷄(염계) 可憐(가련)하다

八公山(팔공산) 桐藪(동수) 안은
王建(왕건) 太祖(태조) 戰場(전장)이라
松岳山(송악산) 싸인 旺氣(왕긔)
松都(송도) 長安(장안)도 얏고나
滿月臺(만월대) 前(전)러 滿月(만월)이
月滿則虧(월만즉휴)에 이하리
滔〻(도도) 遊水(유슈) 流(류) 今古(금고)에
朝鮮(조션) 색이 아니로다

甄萱(견훤)에게 被圍(피위)하야
國在(국재) 垓心(해심) 危急(위급)하다
虎踞(호거) 龍盤(룡반) 나리 峰巒(봉만)
佛頭(불두)와 恰似(흡사)하다
三千里(삼천리) 錦繡(금수) 江山(강산)
歷代(력대) 興亡(흥망) 몃〻 진고
어와 벗님네야
이 諺詞(언사)로 終篇(종편)하오

後叙

於乎此吾先君子成均進士兩岡府君遺蹟也府君生于甲戌而沒以癸巳八旬靈光一方歸獨經學文章世所趨服未嘗徑一頭枉一步不肯何敢言而竊覵春風常和河海些常保著述文字不為不多而世道多舛家運不幸盡入于兵燹之中幸其餘存者只此東一十字浮陽歌二編俾保於忠南李雨田家而更求得一片蒐集終作幽明千古之恨惕徹穹壤此何人哉軒昂風儀和厚性度依俙焉恍惚焉不可得以復覩矣深渴歎一編始謀版出不肖以不文淺識僭妄畧識數字于版尾是豈也庶府君之德學階級或可為全鼎之一臠也歟不肖孫基秀泣血

敬書

冊主良園宅

華國하면그만이제 姓名保全하수안가

一聲欸乃滄波外에
山僧이돌어이하리
金陵佳麗帝王州라
龍飛鳳舞이아닌가
蠶頭가朱雀이요
우악재玄武로다
鷄龍山도조컨마는
撤役하고그만가자
擅興訛도서로듯하

松京이狹少하니
새都邑을어대할고
圭臬를精히들고
形勢를살펴보니
南漢山城青龍이요
龍山麻浦白虎로다
河淸海晏甲戌秋에
九重宮闕排設할제
無學이하난말이

金城千里天府國에
漢陽山川반겨고나
三角山나린룡이
仁王山이도야서라
광나루가內水口요
臨津江이外水口라
鄭道傳은子坐午요
無學은亥坐巳라
子坐午로할지이면

眞黃花對偶淵明에
李牧隱이坐處업고
元耘谷어대간고
雉嶽山이놉고놉다
泰山高節鄭圃隱은
丹心歌를지엿고나
博浪沙滄海力士
秦始皇을맛치다시
以사開國政策

金烏山採薇亭은
吉冶隱淸風이라
高峰縣불근무덤
崔都統을죠상하고
趙英珪거동바라
靖安君指揮바다
善竹橋불근피가
至今까지宛然하다
諸王氏무산罪로

少事辛朝殉한장에
伯夷叔齊도잇고나
呼船東問魯連津에
金白巖을차자보자
圃隱을害한야고
手中鐵椎놉피드러
翼薇同死최錄事는
姓名不傳可恨인다
사람人에全가되고

革國하리니